

임진정계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계표지물의 종점

李康源*

The Understanding on the Upper Tumen River System and the Endpoint of Boundary Markers in the Yimjin(1712)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Kang-Won Lee*

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임진정계 당시 두만강 상류 수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조선측에 의해 설치된 경계 표지물(목책) 종점의 위치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극등 지도」와 홍치중의 상소, 허량·박도상의 진술 등을 분석하였다.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언급된 '초파'는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동봉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이며, '제1파'는 모수림하이고, '제2파'는 홍토수(안심수)라는 점, 허량·박도상의 '제3파'·'제4파'는 각각 산천수(용수천)·석을수라는 점, 홍치중의 '제3파'·'제4파'는 각각 석을수·대홍단수라는 점, 경계 표지물의 종점은 '제2파'의 용출처로서 오늘날 홍토수(안심수) 용출처라는 점, 그리고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에 대한 인식은 오류이며, 조선측이 목극등의 요구대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연구결과로서 밝혀졌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임진정계는 지리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청이나 한·중간의 국경 논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백두산정계비, 임진정계, 두만강(토문강), 제1파, 제2파, 제3파, 제4파

Abstract : This paper tries to analyse Mukedeng's and Korean officials' understanding on the upper Tumen river system and to confirm the endpoint of boundary markers built by Korean in 1712~1713. As th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Chopa(初派)', Jeyilpa(第一派) and 'Jeyipa(第二派)' mentioned in the documents could be defined in order named as the second stream of Dongpengshui(董棚水)'s east-south side that flows into Songhua(Sungari) river, Mushulinhe(母樹林河) stream and Hongtosu(紅土水: Ansimsu) stream, and that Heo Ryang and Bak Dosang's 'Jesampa(第三派)' and 'Jesapa(第四派)' could be defined as Sancheonsu(山泉水) stream and Seokeulsu(石乙水) in order named, but Hong Chijoong's 'Jesampa(第三派)' and 'Jesapa(第四派)' could be defined as Seokeulsu(石乙水) stream and Daehongdansu(大紅丹水) stream in order named. Therefore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endpoint of wooden fence built by Korean in 1712 was located at the spring point of Hongtosu(Ansimsu) stream.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is paper asserts that Mukedeng's understanding on the upper Tumen river system rested on several kinds of geographic fallacy, and that on the other hand the boundary markers built by Korean did not follow Mukedeng's orde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concludes that Yimjin(1712)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rested on several kinds of geographic fallacy, so we should not use this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as the reasonable reference of discussion on the boundary between Korea and China today.

Key Words : Baekdusanjeonggyeobi, Yimjin(1712)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Tumen River, Chopa, Jeyilpa, Jeyipa, Jesampa, Jesapa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17-기획연구(공동)).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2017 백두산 국제학술회의: 만주 역사지리 연구와 백두산」(2017. 6. 23.)과 「2017 지리학대회」(2017. 11. 18.)에서 초고형태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aekong@chonbuk.ac.k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12년(숙종 38년) 음력 5월 15일 백두산정계비 설치를 전후한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획정 및 경제표지물 설치 과정을 ‘임진정계(壬辰定界)’라 부르기로 한다. 임진정계는 조·청뿐만 아니라 양국을 뒤이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외교적 쟁점 또는 잠재적 의제가 되어 왔다.

최근 이화자(2012)에 의해 임진정계 경제표지물 중 두만강 상류 방향 토퇴군이 재발견되면서, 임진정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필자는 백두산정계비의 정확한 위치, 「목극등 지도(穆克登地圖)」에 표시된 ‘입지암류(入地暗流)’ 시작지점의 위치, 흑석구(黑石溝: 백두천(白頭川)) 동남안에 설치된 경제표지물 목록·석퇴·토퇴 등의 분포, 흑석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두만강 상류 방향으로 이어지는 토퇴의 분포 상황,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수출(水出)’의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이강원, 2015; 2016; 2017).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 논문은 1712년에 설치된 경제표지물의 종점이 두만강 상류 어느 물줄기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진정계 당시 목극등(穆克登)과 조선측 관리들의 두만강 상류 수계에 대한 인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의 기록에 의하면, 두만강 상류 경제표지물의 종점은 ‘제2파 용출처(第二派 湧出處)’이다. 그러나 『숙종실록』의 기록만으로는 ‘제2파’(두 번째 물줄기)가 어느 물줄기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다.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1938)는 임진정계 경제표지물이 정계비 부근의 송화강 상류 동남안에만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그는 두만강 상류 방향으로 설치된 경제표지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신영길(역), 2005, 133). 이러한 시노다 지사쿠의 견해는 신기석(1979)에 의해 반복되었다. 타이완의 장춘우(張存武, 1987, 198)는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에 언급된 ‘초파’·‘제1파’·‘제2파’·‘제3파’ 등

의 물줄기가 정계비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그가 이 물줄기들이 송화강 수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석화(2000, 59-73)는 목극등이 처음 정한 물은 정계비 북쪽의 오늘날 백두산 삭도 백두역 부근에서 발원하여 십이도하(十二道河)-삼도백하(三道白河)-오도백하(五道白河)-송화강(松花江)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반해, 조선측 실무자들은 그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흑석구에 경제표지물을 설치하였다고 보았다. 강석화에 의해 언급된 물줄기들도 모두 송화강 수계에 속한다. 강석화의 논의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길수(2009, 126)는 ‘제1파’·‘제2파’ 모두 삼도백하의 상류인 내두하(奶頭河) 수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길수에 의해 언급된 물줄기들 역시 모두 송화강 수계에 속한다.

한편, 중국의 양자오취안 등(楊昭全 等, 1993, 188)과 쑤쿠 등(孫庫 等, 2002, 86)은 기록에 언급된 ‘초파’와 ‘제1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또한 목극등 일행이 1712년 5월 11일에 ‘초파(初派)’·‘차파(次派)’·‘제3파(第三派)’ 등을 발견한 것으로 보았다. 목극등이 5월 15일에 정계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 역시 이러한 물줄기들이 송화강 수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목극등이 세운 정계비로 인해 본래 중국에 속했던 장백산 천지 이남을 조선에 떼어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장백산의 절반을 조선에 공짜로 내어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았다(楊昭全 等, 1993, 195-196; 孫庫 等, 2002, 91).

최근 중국의 천후이(陳慧, 2011, 114; 145; 172-176)는 1712년의 정계비는 소홍단수(小紅丹水: 大紅丹水)¹⁾ 최상류에 세워졌고, 그 사이에 최소한 2~3차례 조선측에 의해 옮겨졌으며, 1885년 을유감계 때 정계비가 지금의 자리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이 언급한 ‘제1파’·‘제2파’ 등이 소홍단수 최상류 지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임진정계 당시 목극등과 조선측이 「압록강-이명수(鯉明水)-허항령(虛項嶺: 鶴項嶺)-삼지연(三池淵: 三汲泡)-소홍단수-두만강」을 경계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을유감계에서 청측의 주장을 변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비설(移

碑說)’이라 불리는 이러한 주장은 필자가 이미 진행한 바 있는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분포에 대한 연구에 의해 오류라는 점이 밝혀졌다(이강원, 2016). 이하에서 진행되는 두만강 상류 수계의 비정과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무리한 추측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임진정계시 목극등의 일차별 동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 경계표지물의 분포, ‘입지암류’ 시작지점 그리고 ‘수출’의 위치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임진정계에 대한 보다 진전된 견해는 이중하(李重夏)와 이화자(李花子)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중하는 1885년 을유감계 후반에, 1712~1713년 설치된 두만강 상류 방향 경계표지물을 발견하였고, 그 종점이 홍토산수(紅土山水)라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홍토산수는 오늘날 모수림하(母樹林河)이다. 이화자(2012; 2013; 李花子, 2013; 2014a; 2014b; 2015; 2017)는 이중하가 발견한 두만강 상류 방향 경계표지물을 재발견하였으며,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대해 이중하와 마찬가지로 홍토산수, 곧 오늘날 모수림하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이중하와 이화자는 모두 흑석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모수림하로 이어지는 하천 또는 복류하천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이다. 단언컨대, 그러한 하천은 없다. 또한 이중하와 이화자는 목극등의 수계 인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나아가 목극등의 경계표지물 설치 요구 구간과 조선측의 실제 경계표지물 설치 구간이 일치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이화자는 흑석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두만강 상류 모수림하까지 경계표지물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목극등은 본래 황화송전자(黃花松甸子: 흑석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약류까지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는데, 조선측 실무자들이 황화송전자(1713년 설치된 흑석구 마지막 토퇴 지점)로부터 모수림하까지 경계표지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화자는 홍치중과 허량·박도상 사이의 견해 차이가 흑석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두만강 상류까지의 구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화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은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수출(水出)’과 ‘수출’이라고 표시된 물줄기가 두만강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극등은 그의 지도에 표시된 「土門江原碑(정계비)–‘入地暗流’–‘水出」을 경계로 보았으며, 이를 따라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입지암류’ 시작지점은 황화송전자가 아니라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1,840m 지점이라는 점이 밝혀졌고(이강원, 2015), ‘수출’의 위치도 동봉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의 수출처로서, 해발고도 약 1,340m 지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이강원, 2017).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홍치중과 허량·박도상 사이의 견해 차이는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국한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필자가 ‘무명수2’라고 부르는 동봉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의 수출처 부근으로부터 모수림하로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미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두만강 상류 종점, 곧 ‘제2과 용출처’가 오늘날 북·중 조약 지명의 ‘홍토수’(「북한 지형도」의 ‘안심수’) 용출처라는 점, 대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 지점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이강원, 2016; 2017). 그러나 당시 논문에서는 분량상 제2과 외의 두만강 상류 물줄기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 논문에서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지고, 『속중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 기록과 『비변사등록』 속종 39년(1713) 1월 28일자 기록에서 언급된 두만강 상류 지역의 물줄기를 현재 물줄기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대응하여 비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종점이 앞서 언급한 홍토수(안심수)의 용출처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의 그간의 연구와 이 논문을 통해 밝혀진 임진정계의 결과와 문제점을 총괄하는 것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임진정계시 목극등의 경로

김지남(金指南)의 『북정록(北征錄)』에 따르면, 목극등은 1712년 음력 4월 6일 심양(瀋陽)을 출발하였고, 30일 압록강을 건너 후주(厚州) 동대과수(東臺把守) 앞 강변에 도착하였으며, 5월 1일 구갈과보(舊袞坡堡)에서 접반사 박권 일행과 상견례를 가졌고, 5월 4일 혜산진(惠山鎭)에 이르렀으며, 5월 7일 혜산진을 출발하였다. 이후 압록강을 따라 백두산 지역에 도달하였다.

목극등 일행은 1712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백두산 남쪽의 박달곶 갈밭 지속처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백두산 정상에 오르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을 조사하였다(이강원, 2015, 575). 그러나 「목극등 지도」에는 11일부터 15일까지의 이러한 동선이 일자 별로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박달곶 갈밭 지속처-대각봉 부근 지속처-북류하천 시작점 부근 지속처」로 연결되는 선으로 하여금 자신이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본 지점들을 거치도록 그렸다(이강원, 2015, 576).

5월 15일 목극등 일행은 정계비를 세웠다. 그리고 16일 박달곶을 떠나 흑석구 하도 동남안을 따라 내려가다가 대각봉 근처에서 지속하였고, 17·18일은 「목극등 지도」(그림 5)에 표시된 북류하천 시작 지점에서 지속하였다. 지속처는 대략 흑석구의 황화송전자 부근으로 추정된다. 17~18일 사이에 목극등은 자신이 따라 내려온 하도에 이어지는 물줄기가 북류하다가 서류하는 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이의복이 박권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다. 박권의 「北征日記」 5월 19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저녁에 이의복 선전관의 서신을 보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였다. “비를 세운 곳에서 동류하는 물은 마침내는 서류하는 물로 들어갑니다. 총관은 이것이 두만강의 원류가 아니라고 여기고, 다시 가찰봉 아래 용출하는 물로 향한다고 합니다. 접반사·감사와 상의하여 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²⁾

5월 19일 목극등은 두만강 상류를 향하던 중에 소위 ‘초과’를 지목하고,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 5월 22일 무산부(茂山府) 객사에 이르렀다. 5월 24일 무산부 풍산진(豊山鎭)에서 「목극등 지도」의 사본을 김지남을 통해 접반사 박권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두만강을 계속 따라 내려가면서 28일 경원부(慶源府)에서 외교문서인 자문(咨文)을 조선측에 전달하였고, 다시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30일 경흥부(慶興府)에서 유숙한 후, 6월 1일 두리산(斗里山: 그림 1, 2) 정상에 올라 두만강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일 곧바로 경흥부를 출발하여 아산진(阿山鎭)에서 유숙하였고, 6월 2일 경원부에서 외교문서인 정문(呈文)을 수령하고, 3일 두만강을 건너 청으로 돌아갔다.

필자가 복원한 1712년 목극등의 경로 및 일정은 그림 3과 표 1에, 그 중에서도 백두산 지역 경로 및 일정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목극등의 이러한 경로만 보아도 그가 말하는 ‘토문강(土門江)’, 곧 정계비의 ‘토문(土門)’이 두만강(豆滿江)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정은 『용비어천가』나 『태조실록』에 보이는 두만강 유로와 일치하며, 『제승방략(制勝方略)』의 「열진방어(列鎭防禦)」에 열거된 두만강 남안진보(鎭堡)의 배치와도 일치한다. 목극등이나 조선측 일행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청의 국경으로 삼는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문제는 백두산 지역의 압록강과 두만강 최상류 구역에 있었다.

3.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설치과정

1) 경계표지물 설치에 관한 교섭

1712년 목극등은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답사하면서, 그 결과를 지도로 그렸고, 5월 24일 무산부 풍산진에서 조선측에 그 사본³⁾을 전달하였다. 동시에 물 흐름이 불분명한 곳에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 『속중실록』 38년(1712) 6월 3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두리산 원경

주: 두리산은 함경북도 경흥군(현 라진-선봉시 선봉군) 부포리에 위치한다. 중국 훈춘시 팡촨(防川)에서 2015년 6월 28일 필자 촬영.



그림 2. 「북한 지형도」의 두리산

주: 경인문화사(1997) 「두만강」 도엽. 원 표시 부분에 '두리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남쪽의 호수는 서변포이다.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가 치계(급보)하기를, 「총관이 백두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총관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길을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흐름이 끊긴 뒤 백여 리에서 비로소 솟아난다고 하였는데, 지금 내가 찾은 수원이 이 말과 서로 부합된다. …”고 하였으며, 차원·군관·역관배의 말이 또한 총관의 말과 같았

습니다. 총관이 또 산도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를, “수원의 단류처가 이처럼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아 표지를 세우지 않는다면, 피차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목책으로 한계를 정함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신 등이 대답하기를, “목책은 그곳에 나무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니, 차라리 그 상황에 따라서 혹은 흙을 쌓고, 혹은 돌



그림 3. 1712년 목극동의 답사 경로

주: 國家測繪局編制(1997) 지도 위에 표시함. 숫자는 표 1의 지속지점 번호, E는 두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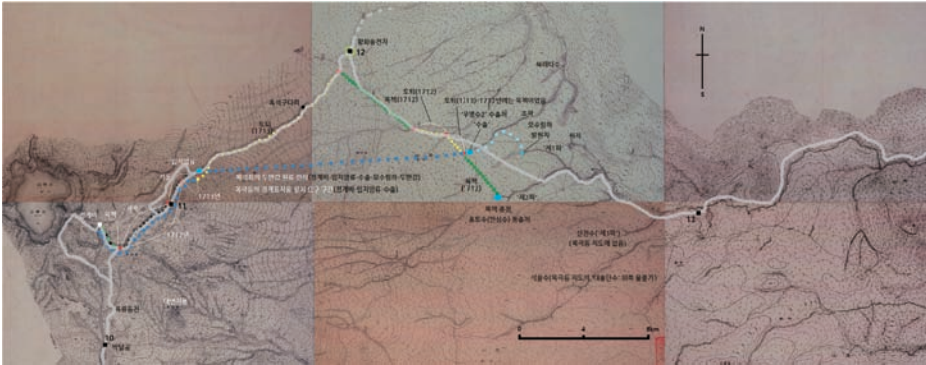


그림 4. 1712년 목극동의 백두산 지역 답사 경로

주: 「일제 지형도」 위에 표시함. 흰색 실선이 목극동의 경로이며, 숫자 10, 11, 12, 13은 지속지점을 나타낸다. 경계표지물의 분포가 확인되어야만 목극동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을 모으며, 혹은 목책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마땅히 조정에 품하여서 편의에 따라 역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니, 대국 사람이 와서 살펴보고 검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대국 사람이 반드시 와서 볼 것 없이 거행 여부를 매년 절사 편에 내가 있는 곳에 알려 (황상께) 전달하는

근거지로 삼을 것이며, 표지를 설치한 뒤에는 매년 순찰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산도 1벌은 돌아가 황상께 아뢰어야 하고, 1벌은 마땅히 국왕 앞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였습 니다.)⁴⁾

이러한 논의는 외교문서인 ‘자문(咨文)’과 ‘정문(摺

표 1. 1712년 목극등의 조선 경내 전체 일정

날짜	통과지점	지속지점	지속지점 번호	비고
4월 30일	압록강 건너 후주 동대파수(厚州 東臺把守) 앞 강변 도착	조선경내 진입	1	도강 지점(지속하지 않음)
30일	압록강을 따라 이동	송전역참(松田驛站)	2	
5월 1일	충천령(衝天嶺)	구갈과보(舊架坡堡)	3	상견례
2일	장진강(長津江), 어면진(魚面鎭)	나난진(羅暖鎭)	4	만호 박도상
3일	장령(長嶺)	인차외진(仁遮外鎭)	5	
4일	허천강(虛川江), 혜산령(惠山嶺)	혜산진(惠山鎭)	6	첨사 정사의
5일	-	혜산진	6	사냥꾼 김애순 면담
6일	-	혜산진	6	
7일	오시천(五是川), 백덕령(栢德嶺)	검천(劍川)물가(普天)	7	
8일	서수라덕(西水羅德), 곤장우(棍杖隅), 압록강 대안	속돌천(束沓川)	8	접반사와 헤어짐, 압록강 대안에 서 지속
9일	압록강 대안	화피덕(樺皮德)	9	목극등 지도의 '樺德'
10일	압록강 5회 건넌	박달곶(朴達串)	10	
11일	백두산 정상, 중천(中泉), 분수령	박달곶	10	
12일	'토문강원(土門江源)(흑석구), '입지암류(入地暗流)' 시작지점	박달곶	10	청측 관원에게 '토문강원(흑석구) 흐름을 따라 가보도록 함
13일	-	박달곶	10	비석 새김
14일	-	박달곶	10	비석 새김
15일	-	박달곶	10	비석 세움
16일	'토문강원(흑석구) 동남안	대각봉 근처	11	
17일	'토문강원(흑석구) 동남안	북류하천 시점	12	
18일	「목극등 지도」의 북류하천 조사	북류하천 시점	12	북류하천이 서류하여 두만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19일	두만강 상류로 방향 전환, '수출(水出)', '제2과' 중간 지점, 두만강 본류 남안	석을수(石乙水) 북안	13	
20일	두만강 건너 대안 지방 경로	광평구(廣坪溝) 동쪽	14	
21일	두만강을 다시 건너 조선 경내에 진입, 대홍단수, 어운강 건넌	어운강(漁濶江) 역참	15	접반사 만남
22일	박하천(朴下川) 건넌	무산부(茂山府) 객사	16	
23일	-	무산부 객사	16	지도 원본 보여줌
24일	시위 등 일부는 마상선(馬尙船)을 타고 두만강 본류를 따라 내려감, 목극등은 양영보(梁永堡)를 거쳐 풍산진에 이름	풍산진(豐山鎭)	17	지도 사본 전달
25일	불하진(虬下鎭)	회령부(會寧府)	18	
26일	고령진(高嶺鎭), 방원진(防垣鎭)	종성부(鍾城府)	19	
27일	동관진(潼關鎭), 영달진(永達鎭)	온성부(穩城府)	20	
28일	미전진(美錢鎭), 훈용진(訓戎鎭)	경원부(慶源府)	21	경원부에서 자문 전달
29일	안원보(安原堡), 건원보(乾原堡)	아산진(阿山鎭)	22	
30일	아오지(阿吾地), 무이진(撫夷鎭)	경흥부(慶興府)	23	
6월 1일	두리산(斗里山)-지도의 E	아산진	22	
2일	건원보	경원부	21	경원부에서 정문 수령
3일	경원부에서 두만강 건너 귀국	훈춘(琿春) 경내로 추정	24	귀국

근거: 「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奎章閣 所藏 『輿地圖』(古 4709-1) 收錄), 金指南 『北征錄』, 朴權 『北征日記』, 洪世泰 (金慶門) 『白頭山記』, 金魯奎 『大韓北輿要選』, 李義記事, 李康源(2015, 575).

文)으로 교환되기에 이른다.

2) 경계표지물 설치에 관한 외교문서

목극등의 자문은 5월 28일 경원부에서 조선측에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동문회고(同文彙考)』에 실려 있으며,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직사가 경계표지물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 의논하는 자문: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는 대신 목극등 등은 조선 접반사·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변경을 조사할 일로써 내가 친히 백두산에 이르러 살펴보니, 압록과 토문 두 강이 모두 백두산의 근처에서 발원하여 동·서 양쪽으로 나뉘어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강의 북쪽을 대국의 영토로, 강의 남쪽을 조선의 영토로 정한 것은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두 강이 발원하는 분수령 가운데 비를 세우고 토문강의 근원으로부터 물 흐름을 따라 내려오면서 살펴보았는데, 물 흐름이 수 십리에 이르러 물의 흔적을 보이지 않고, 돌 틈을 따라 숨어 흘러 100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큰물이 나타나 무산으로 흐릅니다. 양안에는 풀이 드물고 땅이 평평하여 사람들이 변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왕래하면서 월경하고 짐을 짓고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접반사·관찰사와 같이 상의하고자 합니다. 무산과 해산에서 서로 가까운, 물이 없는 이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세워 굳게 지켜야,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가 어느 곳인 줄 알게 하고, 감히 월경하여 일을 만들지 않게 하여, 황제께서 백성들을 아끼시는 지극한 뜻에 따를 수 있고, 또한 조선과 중국 양쪽 변경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상의하고자 자문을 보냅니다. 강희 51년 5월 28일.⁵⁾

이 자문에서 목극등은 “정계비 부근의 물 흐름이 토문강(두만강)의 근원이며, 그 물줄기가 수십 리를 흐르다가 돌 틈으로 복류하기 시작하여, 정계비로부

터 100리에 이르러 큰물로 지표로 나와 두만강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물이 없는 곳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해야 할 것인데, 이곳에 무엇으로 경계표지물을 세우는 것이 좋겠는지?” 묻고 있다.

이러한 자문에 대해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는 6월 2일 경원부에서 정문으로 답하였다. 긴요치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문:

조선국 접반사 의정부 우참찬 박권,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 등은 삼가 바칩니다.…토문강 원류가 복류하여 분명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점을 염려하시고, 이미 지도를 가지고 직접 지시해주셨습니다.…일전에 목책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목책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계책이 아니라고 여겨서 혹은 흙을 쌓거나 혹은 돌을 모으거나 혹은 울타리를 세우거나 하는 일을 농한기에 시작하겠다는 뜻을…삼가 여쭙았습니다. 강희 51년 6월 2일 조선국 접반사 의정부 우참찬 박권,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⁶⁾

이 정문의 골자는 목극등이 지도에 표시한 바대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되, 농한기를 이용하여 흙을 쌓거나 돌을 모으거나 울타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목극등은 이 정문을 6월 2일 수령하고, 6월 3일 두만강을 건너 청으로 돌아갔다.

한편, 1885년의 을유감계와 1887년의 정해감계에 참여한 중국측 관원들과 이후의 일부 기록 및 연구들은 백두산정계비의 성격을 ‘정계(定界: 국경획정)’가 아닌 ‘사변(查邊: 변경조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계비의 내용에 ‘사변’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1712년 목극등의 답사 목적이 단순히 ‘사변’이라면, 외교문서인 자문과 정문에서 경계표지물 설치에 관해 언급할 까닭이 없다. 1712년 목극등의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답사의 목적은 ‘정계’, 곧 국경획정이었다.

3) 1712년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진행과정

(1) 경계표지물 설치 주관기관과 시기

목극등과 박권·이선부 사이에 합의된 경계표지물 설치는 1712년 농한기에 함경도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숙종실록』 38년(1712) 7월 20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영의정 서종태가 말하기를 “백두산에 경계를 정하고 영원히 범월의 근심을 막아 두 나라가 모두 편리하니, 이 일은 마땅히 감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서종태가 아뢰는 바로 인하여, 북로의 경계를 정한 곳에 토축과 목책으로 표지를 설치할 일을 본도(함경도)에 명하여, 농한기를 기다려 고을의 수령과 변경의 장교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하게 하였다.⁷⁾

이 기록을 통하여,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함경감사가 총괄하고 고을 수령과 장교들이 주축이 되어, 인력동원에 부담이 적은 농한기에 실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 기록을 검토해보면,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는 함경도 감사 이선부가 총괄하고, 당시 북평사 홍치중이 관리하며, 당시 거산찰방 허량과 나난만호 박도상이 실무책임을 맡았고, 공사는 음력 8월 초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완료시기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완료시기는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0월 10일자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영의정 이유가 계하기를, “함경감사 이선부의 보고 중에 백두산의 입본처(立本處)에 이미 설책(設柵)·입표(立標)하였다 하고, 앞으로 절사(節使)를 보낼 때에 목극등에게 전언하는 말로 삼자 합니다. 무릇 목극등이 돌아갈 때 비석을 세운 곳 이하의 경계표지물 설치하는 훗날 사신이 왕래할 때 전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번에 사신

이 갈 때 역관들로 하여금 이로써 전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저들이 이미 그런 말을 했다면, 이번에 사신이 갈 때 그들로 하여금 전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다.⁸⁾

이 기록을 통하여 1712년 10월 10일(음력)에 함경감사 이선부의 경계표지물 공사완료 보고가 조정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두산의 공사완료 시점부터 함흥을 거쳐 보고서가 한양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는 1712년 음력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대략 2개월간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12년 음력 8월 1일은 양력 9월 1일이었다. 따라서 양력 9월 초순부터 서리가 내리는 백두산 지역의 기후조건에 비추어 보아 농한기는 음력 8월 초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음력 10월(양력 11월)이 되면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치구간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하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백두산 정상부로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므로, 홍치중은 “먼저 비를 세운 곳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라”⁹⁾고 했던 것이다.

(3)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인력동원 내역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5일자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임금께서 불러서 만나보실 때 영의정 이유가 아뢰기를, 「백두산 경계표지물 세울 곳의 설축공사 사항은 함경감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공사가 끝났다는 뜻으로 이번 사행시에 목극등에게 전하기로, 전에 이미 여쭙고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0월 10일에 기록된 결정을 말함). 박권의 말을 들으니, “3백 명의 일꾼(三百名之軍)으로써 그리 오래지 않아 설축공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 그 사이 혹시나 착실하지 못한 일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만약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 전언

하면, 훗날 저들이 혹시나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하는 일이 있을까 싶고, 부실의 염려가 없지 않으니, 우선은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해두고 공사가 끝났다는 뜻을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과연 그러하니, 이에 따라 사행에게 다시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3백 명의 일꾼으로써 신속히 공사를 마쳤다는 것은 나 역시 미심쩍은 바가 있다. 지금은 우선 공사를 시작했다고 전언하는 것이 실로 마땅하다.” 하시고, 아뢴 바에 의거하여 분부하시길, “공사에 착실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본도(함경도)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고 하셨습니다.¹⁰⁾

이 기록을 통하여, ‘3백 명의 일꾼’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살펴볼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머나먼 변경의 고달픈 백성이 4~5일의 일정으로 여러 차례 공사에 동원되어 그 폐단이 적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동원된 인력이 경계표지물 공사현장으로부터 도보로 4~5일 거리에 사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함경감사와 북평사의 관할구역에 거주하였을 것이므로, 대략 무산~장파(長坡) 일대의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 기록을 통하여, 경계표지물 설치의 정확성에 대한 조정의 입장이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뒤에서 살펴볼 경계표지물 종점을 둘러싼 논란에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에 대한 막연한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 기록에 나타난 바대로 함경도에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2) 11월 20일에 기록된 내용이다.

(4)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오류에 대한 우려

앞서 언급한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5일 기록에서 “공사에 착실하지 못한 일이 없는지 함경도에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숙종의 지시에 대하여, 함경감사 이선부는 11월 20일 조정에 당도한

장계에서 “전후에 잘 살피지 못한 실책이 있다.”고 하였다.

함경감사가 장계하여, “백두산 정계 표지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전후에 잘 살피지 못한 실책이 있으니, 황공히 처벌을 기다립니다.” 하니, (임금께서) 이덕영(좌부승지)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길, “처벌을 기다릴 것이 없다.”고 회답하는 유지를 내리셨다.¹¹⁾

이 기록에 언급된 ‘전후에 잘 살피지 못한 실책’이 뒤에 논란이 되는 경계표지물 종점에 관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선부는 박권과 더불어 정계 과정에서 태만을 사유로 6월 9일에 사헌부로부터 과직 압력을 받았다.¹²⁾ 게다가 이제 임금마저 자신의 일처리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으니, 그 자체로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식의 겸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만약 ‘전후에 잘 살피지 못한 실책’이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관한 것이라면, 이선부 역시 장계에서 그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혔을 것이고, 그것은 이 시점에서 조정의 논란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계표지물 종점에 관한 논란은 홍치중의 상소가 도착한 다음에 있었다.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0월 10일자 와 11월 20일자에 기록된 이선부의 보고가 바로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에서 언급된 이선부의 보고일 것이다.

4. 두만강 상류 수계의 비정과 경계표지물 종점의 위치

1)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

임진정계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관한 일차적인 사료는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이다. 전자는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에 실려 있다. 후자는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자와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

번역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번역문으로는 임진정계에 대한 수미일관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백두산 현지의 지리적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내용이 길지만,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숙종실록』의 홍치중 상소와 『비변사등록』의 허량·박도상 진술 전문을 번역하기로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문단을 나누었다.

(1) 홍치중의 상소

홍치중은 1712년 1월 26일 북평사에 임명되었고,¹³⁾ 4월 16일 숙종에게 임지로 떠나는 인사(下直)를 하였다.¹⁴⁾ 함경도에서 언제 서울로 돌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8월 초에는 백두산에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돌아왔을 것이다. 11월 27일 임금이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은 홍치중에 대해 파직 건의가 있었고, 숙종은 이에 대해 따지기만하고 파직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¹⁵⁾ 같은 날 홍치중은 부사직(副司直)에 임명되었다.¹⁶⁾ 그런데 『승정원일기』 12월 6일자에 홍치중이 이 부사직 임명에 대해 ‘집안 일’을 이유로 벼슬을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¹⁷⁾ 이에 따르면,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에 실린 홍치중의 상소는 전날인 6일에 제출되었다. 홍치중의 상소 전문은 다음과 같다.

1712년 12월 7일(병진): 이 무렵 함경감사 이선부가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거의 다 마쳤다는 내용으로 임금께 보고하였다. 겸문학 홍치중은 일찍이 북평사로서 경계표지물 설치 초기에 가서 살펴보았는데, 그 곡절에 대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북관에 있을 때 백두산의 경계표지물 설치할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보아 백두산의 동쪽, 진장산의 안쪽에서 나와 합쳐져 두만강이 되는 물은 모두 4파(派: 갈래)인데, 그 중에 가

장 남쪽의 제4파는 북평사 장한상이 맨 처음 가서 살펴보다가 빙설에 막혀 전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 북쪽의 제3파는 북우후 김사정 등이 추후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 북쪽의 제2파는 나난만호 박도상이 청나라 차사가 나왔을 때 도로 차원으로 따라갔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 가장 북쪽의 제1파는 수원이 조금 짧고 제2파와 가장 가까운 까닭에, 하류에서 제2파로 흘러들어 두만강의 최초의 원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나라 차사가 가리키며, “강원이 땅속으로 들어가 복류하다가 다시 용출하는 물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제1파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으며 사봉의 아래인데, 당초 청나라 차사가 백두산에서 내려와 수원을 두루 찾을 때, 이곳에 이르러 말을 세우고 말하기를, “이것이 곧 토문강의 원류이다.”라고 하였고, 더는 그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언덕을 통하여 갔으며, 제2파에 당도하여, 제1파가 와서 합쳐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이 과연 여기에서 합쳐지니, 그것이 토문강의 원류임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경계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그 여러 수원의 갈래와 경계를 정한 곡절의 대략입니다.¹⁸⁾

신이 여러 차원들을 데리고, 청나라 차사가 “강원이 돌아 들어가는 곳”이라고 일컬은 곳에 도착하니, 감역과 차원 모두가 하는 말이 “이 물이 비록 청나라 차사가 정한 강원이지만, 그때는 일이 급박하여 미처 그 하류를 두루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경계표지물을 세우게 되었으니, 한 번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거산찰방 허량과 나난만호 박도상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까지 갔는데,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오는 다른 물과 합쳐져 점점 동북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끝까지 찾아보려 한다면, 장차 오랑개 땅으로 깊이 들어갈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후시라도 저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곧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¹⁹⁾

전체적으로 보아, 대략 청나라 차사는 단지 수출처 및 제1파와 제2파가 합류하는 곳만 보았을

뿐이고, 일찍이 물을 따라 내려가 끝까지 흘러가는 곳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중간에 이른바 제1파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제2파로 와서 합쳐지는데도, 자신이 본 것이 두만강으로 흘러든다고 오인했으니, 이는 진실로 경술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²⁰⁾

이미 강원이 과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청나라 차사가 정한 것임을 핑계로 이 물에다가 바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한다면, 하류는 이미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 향해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다가 국경의 한계는 다시 의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뒷날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여러 차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말하기를, “이미 잘못 짚은 강원은 비록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류가 어떠한지는 논할 것 없이 단류처 이상은 진실로 마땅히 경계표지물 설치 범위 중에 있어야 하니, 먼저 정계비를 세운 곳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되, 나무가 없고 돌만 있으면 돌을 쌓아 돈대를 만들고, 나무만 있고 돌이 없으면 나무를 베어 목책을 세우기로 하며, 오늘 조정의 명령이 본래 한 번에 공사를 마치라는 뜻이 아니니, 빨리 마치려 하지 말고 오직 견고하게 하는 데 힘쓰되, 이른바 수출처 못미처, 잠시 역사를 정지하고 돌아가기로 한다. 강원을 변경하는 것은 조정의 계획이 정해지기를 서서히 기다려서, 내년에 공사를 계속할 때 나아감과 물러섬의 근거로 삼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차원들이 모두 옳다고 하였습니다.²¹⁾

그런데 신이 뒤에 들으니, 허량 등이 미봉하는 데만 급급하여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책을 제2파 수원에 연결했다고 합니다. 대저 목책이 끝나는 곳은 바로 땅의 경계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두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두 차원의 뜻만으로 조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물에다 강역을 제멋대로 정했으니, 이는 마땅히 별로 다스려 강토에 관한 일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

원에 관한 사항은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안에 따라 잘 처리하게 하소서.”²²⁾

(2) 허량·박도상의 진술

홍지중의 상소를 두고 조정의 논의가 있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함경도의 도신(道臣: 감사)과 수신(帥臣: 병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고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정에 보고하도록 한다. 둘째, 허량·박도상을 비변사로 압송하여 문초한다.

허량·박도상에 대한 압송과 문초는 비변사에 이관되었다. 1713년 1월 4일 비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작년 말 정부 보고할 때, 두만강원을 다시 조사하는 일에 대해 여쭙니, “문관당상은 당분간 과견하지 말고, 먼저 본도(함경도)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사람을 보내서 그 수원이 귀결되는 곳을 자세히 살피게 하여 분명하게 보고토록 할 것이며, 또 차원을 잡아다가 조사한 뒤에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교하셨습니다(『속중실록』 38년(1712) 12월 7일의 기록을 말함). 지금 이와 같이 본도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당초 수파(水派)를 살펴서 정한 것과 이번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때 그 착오를 깨달은 상황을 순서대로 생각하니, 마땅히 차원을 조사한 뒤에 본도에 분부하시어 그 사실 여부를 다시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차원에 대한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본도에 분부하여 다시 살피게 하는 것은 선후 순서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목전의 긴급한 일도 아니니, 우선 공문의 발송은 서서히 하고, 차원이 잡혀오기를 기다려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고서, 품지하고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셨다.²³⁾

비변사의 이러한 의견은 1월 5일에 조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1월 5일의 기록²⁴⁾에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내용의 골자는 함경도로 하여금 경계표지물의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은 미루고, 먼저 허량·박도상을 잡아다 문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허량·박도상은 비변사로 잡혀오기 전에 사면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1월 10일자 기록에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이날 사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월 20일 비변사는 이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숙종의 윤허를 다시 받아야 했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치한 곳 수파(水派)의 착오 여부는 차원을 잡아와 조사하기를 기다려 그 진술내용을 살펴본 후에 처리하기로 일찍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차원인 전 거산찰방 허량과 전 나난만호 박도상 등은 미처 잡아오기 전에 사면령을 입어 사면되었습니다. 비변사에서 불러 물은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유택한다.”고 답하셨다.²⁵⁾

따라서 허량·박도상은 ‘잡혀와 문초당하는 신분’에서 ‘불러와 물음에 답하는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이 비변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와 『비변사등록』 39년(1713) 1월 28일자에 실려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비변사가 담당했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1713년 1월 28일이나 그에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숙종실록』 편찬자들은 이들의 진술이 홍치중의 상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홍치중의 상소에 대해 논의한 1712년 12월 7일자에 이들의 진술을 삽입했을 것이다(이강원, 2016, 579). 두 기록을 대조해보면, 『비변사등록』의 기록이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변사의 기록은 이두식(吏讀式) 표현이 첨가되어 있는데, 실록에서는 이두식 표현이 사라지고, 일부 축약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비변사등록』의 기록을 전문 번역하기로 한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 거산찰방 허량과 전 나난만호 박도상 등에게 앞서 임금께 여쭙어 결정한 바에 의거하여 본사에서 불러 물으니, 그 대답한 바는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별단으로 써서 제출합니다. 또 허량이 그려 온 지도가 있는데, 이

것이 작아서 살피기에 불편하여, 잘 그리는 자로 하여금 그 지도에 따라 허량과 상의하여 고쳐 그리게 하였고, 별단과 더불어 제출하여 살펴보시도록 준비하였습니다.”²⁶⁾

그 대답한 바를 보니, 제2과에 멋대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일을 여러 말로 변명하였고, 목극등 차관이 복류하다가 다시 나온 물이라고 정한 것은 분명히 두만강으로 들어가지 않고 북쪽으로 흐른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손우제·한치익·월이·순전 등을 끌어들여 증거로 삼았습니다. 지난 여름 목극등 차관이 수원을 살펴서 정할 때, 이른바 초과가 제1과로 와서 합치지 않는다는 것을 당초에 상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맡은 바 일이 각각 달라서 당초 초과의 하류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혼자 해명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본도(함경도)로 하여금 손우제·한치익·월이·순전 및 지난여름에 동행한 조태상 등에게 캐묻도록 하고, 그들의 진술 후에 이들과 그들의 같고 다름과 거짓과 참됨을 대조하여 장계를 올려 아뢰도록 하여, 그 물 갈래가 흘러가는 곳이 맞는지 여부를 서서히 다시 살펴서 품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유택한다.”고 답하셨다.²⁷⁾

전 거산찰방 허량과 전 나난만호 박도상에 대한 문제:

① 「아뢰입니다. 저희들은 두만강 원류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정하는 차사원으로 나아갔으므로, 마땅히 지난여름 목극등이 지형을 가리키고 그린 것에 의거해야 하고, 목극등 차관이 정한 수원이 비록 착오가 있지만, 이는 차사원이 변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북평사가 본디 “비를 세운 곳으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되, 수출처 못미쳐, 잠시 공사를 정지하며, 조정의 계획이 정해지기를 서서히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차사원이 된 자 역시 마땅히 북평사가 말한 바에 의거하여 거행해야 하거늘, 저희들이 어찌서 제 마음대로 미봉하여 제1과 수원을 버려두고 제멋대로 제2과 수원에 목책을

설치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²⁸⁾

경계를 정하고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인데, 저희들이 이를 도신에게 말하여 임금께 보고한 후 처리하는 것에 의거하지 않고, 이와 같이 멋대로 행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 목극등 차관이 백두산으로부터 물 흐름에 따라 경계를 정할 때 저희들이 그와 더불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즉, 목극등 차관이 복류하다가 다시 나온 물을 제1과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정하였는데, 그 물이 따로 동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의심치 않았으니, 전혀 살피지 않은 것은 비록 허술하게 한 소치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애초에 자세히 살피지 않고 (목극등 차관이) 잘못 정하도록 맡겨두고 끝까지 찾아볼 것을 청하지 않다가, 지금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때에 비로소 그 잘못을 깨달았으니, 흐리멍덩한 책임 역시 벗어나기 어려운 바인데, 위에서 언급한 복류하다가 다시 나온 물을 처음에는 어찌하여 제1과에 들어간다고 정하였고, 지금은 어찌하여 따로 동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 물이 비록 동북으로 흘러가지만 한편 혹은 진장산을 빙 돌아와서 두만강에 합수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²⁹⁾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을 명백히 가린 후에 비로소 피아의 경계를 단정할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전에 이미 목극등 차관과 동행하였고, 지금 또 물 흐름을 따라 살펴본 것이 30리에 이르므로, 이곳의 산천 형세를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니, 당초에 끝까지 찾아보지 아니하고 잘못 정하게 된 사유를 지금에 와서 또한 숨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사면령을 만나 잡혀와 심문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 일의 관계가 가볍지 않아 저희들을 조사한 후에 조정에서 처리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³⁰⁾

② 따라서 본사(비변사)에서 불러 물을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물어보시는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열거고, 또한 꾸짖어 캐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³¹⁾

③ 「저는 작년 4월 청나라 차관의 행차에서 사

람의 양식과 말의 먹이 및 청측의 짐을 실어주는 차사원으로 후주로부터 백두산까지 실무자들을 거느리고 청나라 사신을 따라 갔사옵니다.³²⁾

백두산의 지도로 대략 말하자면, 목극등 차관이 가리킨 소류가 제1과이며, 도로 차사원 박도상과 갑산사람 등이 수원이 용출하는 것이라고 가리킨 것은 곧 현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인데 제2과이고, 송태선이 용출처라고 가리킨 것은 제3과입니다. 제1과·제2과는 목극등 차관의 지도에 들어가 있고, 제3과는 감영에서 이전에 올린 지도에 첨가되었으며, 긴요치 않은 소류 2~3과는 지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³³⁾

당초 목극등 차관이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올 때에 박도상과 갑산 출신 길 안내인 등을 먼저 두만강 용출처에 보내 기다리도록 했는데, 목극등 차관 또한 뒤따라 와서 용출처 10여 리 못미처 한 소류를 보고 말을 세워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산세를 보니 이 물은 응당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떼면떼면하게 언급하였고, 제2과의 물 흐름이 시작되는 곳(源頭: 발원지)으로부터 아래로 4~5리 되는 지점에 곧장 이르렀으며, 목극등 차관이 또 말하기를, “이 물이 원파(元派: 으뜸이 되는 물줄기)임이 분명하니, 내가 굳이 발원하는 곳까지 가볼 것이 없다.”고 하기에, 군관 조태상 한 사람만이 혼자 가서 발원처를 보았고, 목극등 차관 일행은 물 흐름을 따라 내려갔는데, 4~5리를 지나지 않아서 또 소류가 북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앞서 본 첫 흐름의 물이 와서 이곳으로 들어간다.”하였고, 또 옮기어 20리를 내려가 지속할 때, 목극등 차관이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산도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초과의 물에 목책을 설치한다면, 이는 너희 나라가 용출처라고 말하는 곳으로부터 10여 리가 더 멀어지니, 너희 나라에서 땅을 많이 얻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하므로, 따라간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의심 없이 믿었으며, 중간의 8~9리는 더 살피보지 않고, 거듭하여 물을 따라 내려와 노은동산을 지나 어윤강의 사신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와서 모였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사안은 제

가 본래 맡은 임무가 아니었으므로, 그 경위를 사신에게 직접 설명할 일이 없었습니다.³⁴⁾

8월 초, 순찰사가 비변사의 공문에 근거하여 백두산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차사원으로 또 차출하므로, 경성부로 달려가 북평사와 더불어 일꾼들을 데리고 공사할 곳으로 갔으며, 제 생각에, 지난번 목극등 차관이 수원을 살펴서 정할 때 제가 말을 부리는 차사원으로 비록 따라 가가는 했으나, 맡은 바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거느린 사람과 말의 식량과 먹이 및 저들의 짐 실어주는 일을 뒤에서 두루 살피고 점검하고 요구에 응하느라 겨를이 없었으므로, 당초 목극등이 가리킨 초과의 하류를 찾아보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때 자세히 살피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하였습니다. 북평사에게 보고하고, 그가 거느리고 간 장교 손우제 및 나난만호 박도상, 무산사람 한치의 등과 30여 리까지 함께 가며 찾아보니, 수세는 점점 커지며 북쪽으로 갔고 두만강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왕래한 이 30리 사이에 저쪽 사람의 행적이 있었으므로, 손우제는 혹시 저쪽 사람과 만나게 될까 염려하여 나가려 하지 않았고 번번이 뒤쳐졌으며, 한치익도 그 자신은 변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쪽과 저쪽의 지형을 자세히 아는데, 이 물은 분명히 북쪽으로 흐르고 두만강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며, 만약 혹시라도 두만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훗날 그 자신이 거짓으로 꾸민 죄를 입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목극등 차관이 말한 ‘소류가 와서 합치는 곳’을 또 살펴보니, 곧 산골짜기 사이에 몇 리(數里) 남짓 가로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돌아가 북평사에게 보고하니, 북평사는 “이 물은 이미 잘못된 것이니, 비석을 세운 곳으로부터 공사를 시작하되, 용출처에 이르러서는 잠시 공사를 멈추고, 조정에 여쭙고 그 결정을 기다린 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북평사가 먼저 돌아갈 때에 한치의 및 갑산사람, 성은 모르겠고 월이라 불리는 사람이 수세를 살펴보고, 북평사에게 돌아와 보고하였으며, 그 후 저도 두 사람과 같이 다시 수세를 살펴보았습니다.³⁵⁾

월이 및 마두·순전 등이 돌아온 길은 남중산 국경 건너편이었는데, 두만강으로 와서 합쳐지는 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초에 청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흐름을 따라 내려갔는데, 현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으로부터 아래의 대홍단수까지는 이틀 반의 일정으로, 목극등 차관이 초과라고 가리킨 곳으로부터 현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까지의 사이에는 미미하게 올라온 언덕이 있어서 그대로 이어져 진장산이 되고, 구불구불 무산까지 내려가며, 그 사이에는 저쪽 땅으로부터 본래 다른 물이 와서 합치는 것이 없었습니다.³⁶⁾

목극등 차관이 초과라고 가리킨 곳으로부터 현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까지는 거리가 대략 10리 남짓 되며, 북평사가 제1과라고 일컫는 것은 곧 목극등 차관이 소류가 와서 합치는 곳이라고 한 곳인데, 현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과의 거리는 몇 리(數里)에 불과합니다. 목극등 차관이 가리킨 물은 이미 착오이고, 박도상 및 갑산사람 등이 가리킨 제2과가 원류임이 분명하여 조금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이곳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외에 전혀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북평사가 제1과라고 일컫는 것은 본래 산골짜기 사이에 몇 리(數里) 남짓 가로로 나온 세류(細流)이니, 결코 이를 용출처라고 지목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이 물에 목책을 옹기려 한다면, 원류임이 분명한 상류를 버리고 8~9리 남짓 내려가 비로소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이니, 또한 매우 부당합니다.³⁷⁾

또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에 소류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 5~6과이며, 용출처로부터 아래로 남중산까지 소류가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4~5과인데, 수목이 하늘에 닿아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곳에 소류가 이처럼 혼잡하므로, 무식하고 얕은 생각에, 만약 훗날의 차사원이 잘못 알고 북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책을 설치한다면, 앞날에 걱정이 없지 않을까 두려웠으며, 영문(營門)을 오가는 동안에 반드시 열흘 내지 한 달을 쓰게 되므로 형편상 기다리기 어려웠고, 머나먼 변경의 고달픈 백성이 4~5일의 일정으로 여러 차례 공사

에 동원되어 그 폐단이 적지 않았으므로, 형편에 따라 잠시 먼저 경계표지물을 설치하고, 영문에 달려가 실상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방할 것 같았습니다.³⁸⁾

그래서 여러 차사원들과 상의한 후, 비석을 세운 곳으로부터 아래로 25리 구간은 혹은 목책을 하거나 혹은 돌을 쌓았고, 그 아래 수출처 5리 및 건천 20여 리 구간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내의 흔적이 분명한 까닭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또 그 아래로 용출처까지 40여 리에는 모두 목책을 설치하되, 그 사이의 5~6리는 원래 나무와 돌은 없었지만 토질이 강하기에 다만 흙으로 돈대(土墩)를 설치하였습니다. 전후의 실상이 이에 불과하다고 사유를 갖추어 아뢰입니다.³⁹⁾

④ 전 나난만호 박도상 문계: 「저는 작년 4월 청나라 차관의 행차에 도로 차사원으로 먼저 가며 길을 인도하여 백두산에 갔었고, 작년 8월에는 또 경계표지물 설치할 곳의 감역 차사원으로 차출되어 허량과 같이 공사를 감독하였습니다. 문계 내용은 허량이 진술한 바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으므로 번거롭게 아뢰지 않습니다.»⁴⁰⁾

위의 인용문 중 ① 부분은 조정에서 비변사로 하여금 물어보도록 한 내용을 허량·박도상이 스스로 읽어보는 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에 칠방과 만호의 직책에 있었으므로 글을 읽을 능력이 충분하다. 『비변사등록』의 다른 문답 기록들 중에는 이와 달리 비변사 관리들이 질문서에 따라 직접 묻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대상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경우이다. 따라서 허량·박도상이 질문서를 스스로 읽고 있다는 전제 하에 번역을 하면 그 뜻이 통한다. 필자의 번역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② 부분은 비변사의 관리들이 삽입한 서류 격식이다. 이것은 ①의 내용을 물어보라는 전교가 있었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열거하였으며,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더라, 라는 내용이다. ③ 부분은 허량이 대답한 내용이며, ④는 박도상에게 물었는데, 박도상 자신이 진술할 내용이 허량의 그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 및 경계표지물 종점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은 ③ 부분에 들어 있다. 이 부분은 두만강 상류 수계의 대략을 묘사하고, 목극등이 ‘초파’를 두만강원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8월 초 ‘초파’가 복류한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 진장산을 빙 돌아와 두만강 대안에서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다른 물이 없다는 점, ‘제1파’가 경계표지물의 종점이 될 수 없다는 점, 자신들이 ‘제2파’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상황적인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경계표지물 설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량·박도상의 비변사에서의 진술은 1713년 1월 28일 숙종에게 보고되었고, 숙종은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함경도로 하여금 조사·보고하도록 하였다.⁴¹⁾ 후술하겠지만, 허량·박도상의 이러한 진술은 3월 15일 조정에서 인정되었다.

이제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임진정계 당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계표지물 종점에 대한 견해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2)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 내용 대조

위의 두 기록에서 보이는 홍치중과 허량·박도상 사이의 견해 차이는 기본적으로 두만강 상류에 국한된 것이며,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관한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기록을 대조해보면, 홍치중은 남에서 북으로 ‘제4파’·‘제3파’·‘제2파’·‘제1파’의 물줄기를 언급하고 있고, 허량·박도상은 북에서 남으로 ‘제1파’·‘제2파’·‘제3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량·박도상은 3개의 물줄기만을 언급하였는데, 그중 ‘제3파’는 「목극등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언급한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나타난 ‘제1파’·‘제2파’·‘제3파’·‘제4파’ 등에 관련된 골자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허량·박도상과 홍치중의 두만강 상류 수계 언급 내용 비교

수파 (水派)	홍치중	허량·박도상	비고
초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극등이 처음 지목한 물줄기 - 목극등은 이 물줄기가 제1파와 이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오류임 - 두만강에 유입되지 않음 - 제1파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고, 사봉의 아래임 -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다른 물과 합류하여 점점 동북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극등이 처음 지목한 물줄기 - 목극등은 이 물줄기가 제1파 소류와 이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오류임 - 두만강에 유입되지 않음 - 제2파 용출처로부터 “10여 리 못미친 거리에” 또는 “10리 남짓 떨어져” 있음 - 하류는 북쪽으로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치 - 필자가 ‘무명수’라고 명명한 물줄기
제1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이 짧고 제2파에 유입 - 두만강 최초 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극등이 가리킨 소류 - 가로로 나온 세류 - 제2파로 유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치 - 모수림하
제2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도상 등이 발견 - 허량·박도상이 설치한 경계표지물 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도상과 갑산인 등이 발견 - 자신들이 설치한 경계표지물 종점 - 제2파의 용출처는 제1파와 합류점으로부터 8~9리 남짓 상류에 있음 - 목극등이 초파로부터 곧장 제2파 원두 아래 4~5리 되는 곳에 이르렀으며, 다시 물 흐름을 따라 4~5리를 내려가 제1파와 제2파 합류점에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치 - 북·중 조약 지명의 ‘홍토수’, 북한지리학자들의 ‘신무성수’, 「북한 지형도」의 <안신무수-북류-안심수> 구간 중 ‘안심수’ - 이하 ‘홍토수(안심수)’로 표기함
제3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사정 등이 추후로 살피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태선이 발견 - 목극등 지도에 없음 - 감영에서 이전에 올린 지도에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견 경위로는 일치, 「목극등 지도」로는 불일치 - 김지남의 『북정록』 5월 21일: “송태선 등이 말한 세 물줄기가 솟아난다는 곳” - 박권의 「북정일기」 5월 8일: “북우후 김사정의 두만강 간심시 태만” - 박종의 「백두산유록」(1764), 5월 20일: “갑산엽부 송태선” - 홍치중의 ‘제3파’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진, 위로부터 세 번째 물줄기, 곧 석을수로 추정됨 - 허량·박도상의 ‘제3파’는 산천수(용수천, 대량하)임
제4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한상이 빙설에 막혀 전진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급 없음 - 문맥상 목극등 지도의 대홍단수 북쪽 물줄기를 제4파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제1파와 제2파 합류점으로부터 20리를 내려가 지속했음 - 「목극등 지도」의 5월 19일 지속처 바로 남쪽의 물줄기가 ‘제4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극등 지도」로 불일치 - 『속중실록』 38년 3월 6일: 장한상의 수원조사 내용 - 『속중실록』 38년 4월 7일: 장한상의 오류 - 박권의 「북정일기」 5월 13일: 장한상의 지도 중 두만강 수원이라고 그려진 것은 대홍단수라는 어윤강(서두수) 주민 원익성의 증언 - 김지남의 『북정록』 5월 16일: 원익성이 접반사에게 한 말을 전해 들음 - 홍치중의 ‘제4파’는 「목극등 지도」의 네 번째 물줄기, 곧 대홍단수로 추정됨 - 허량·박도상은 ‘제4파’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문맥상 「목극등 지도」의 대홍단수 북쪽(위쪽) 물줄기를 제4파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들의 ‘제4파’는 석을수임.

3)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그 오류

(1)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을 통해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그 오류를 살펴볼 수 있다.

흑석구의 황화송전자 부근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두만강 상류 방향으로 이동한 목극등은 중간에 하나의 작은 물줄기를 보고, “이 산세를 보니, 이 물은 웅당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물줄기는 “(두만)강원이 땅속으로 들어가 북류하다가 다시 용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제2파’ 물 흐름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아래로 4~5리 되는 지점에 곧장 이르렀으며, 목극등이 또 말하기를, “이 물이 원파(元派)임이 분명하니, 내가 굳이 그 발원처까지 가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고, 군관 조태상 한 사람만이 혼자 가서 발원처를 보았다. 다시 목극등은 물 흐름을 따라 내려갔는데, 4~5리를 지나지 않아서 또 소류가 북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앞서 본 초파의 물이 와서 이곳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곧 그가 처음 본 작은 물줄기, 곧 ‘초파’가 하류에서 빙 돌아 소류(제1파)가 되어 ‘제2파’에 유입되고, 두만강이 된다는 것이다.

목극등은 정계비를 세운 곳으로부터 이어지는 골짜기를 따라 내려갔는데, 그 골짜기의 ‘입지암류’ 시작지점 이하는 물 흐름이 없는 건천이었고, 또 그 골짜기가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물줄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자, ‘입지암류’ 시작지점에서 동쪽으로 북류하는 물이 ‘초파’ 수출처에서 지표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입지암류’ 시작지점 이하의 흑석구 골짜기는 송화강 수계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건천으로 물 흐름이 없었으므로, 건천 구간은 지도에 물줄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목극등 지도」(그림 5)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며, 「강희 황여전람도」(그림 7)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목극등이 「정계비-흑석구-‘입지암류’ 시작지점-북류-‘수출’-‘초파’-‘제1파’-‘제2파’-두만강」으로 물줄기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강원, 2017). 「목극등 지도」는 그의 이러한 생각을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목극등은 「정계비-흑석구 동남안-‘입지암류’ 시작지점(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약 1,840m 지점)-‘수출’(무명수2 수출처, 해발고도 1,340m)」의 경로를 따라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중에서도 ‘물이 없는 곳(無水之地)’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입지암류’ 시작지점으로부터 ‘수출’에 이르는 구간이 경계표지물 설치가 특히 필요한 곳이 된다.

이것은 목극등이 자문에서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 “양안이 풀이 드물고 땅이 평평하다(兩岸草稀地平)”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 목극등이 나무를 언급하지 않고 풀만 언급한 것은 그의 「‘입지암류’ 시작지점-‘수출’」 구간이 「황화송전자 부근-무명수2 수출처」 구간이 아니라,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1,840m 지점-무명수2 수출처」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한 더욱 확실한 근거가 된다. 만약 그의 「‘입지암류’ 시작지점-‘수출’」 구간이 「황화송전자 부근-무명수2 수출처」를 의미한다면, 목책이 설치된 이 구간에 존재했던 나무들을 언급하지 않고, “양안이 풀이 드물고 땅이 평평하다”고 했을 까닭이 없다. 한편으로 그는 무명수2 수출처에서 시작하는 물줄기가 동북류하다가 ‘제1파’를 거쳐 ‘제2파’에 합류하여 두만강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명수2 수출처 이하에는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2)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 오류

그러나 목극등이 생각한 것과 같은 하천은 없다. 목극등은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위치가 잘못되었다. 그는 백두산정계비를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령’ 위에 세웠다고 생각했다. 백두산 지역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계는 송화강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지표수 분수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고자 했다면, 「압록강-백두산 남쪽의 압록강과 송화강 분수계-천지 외륜산 능선 관면봉(2,525.8m)-백두산 정상(장군봉: 2,750m)-장군봉과 향도봉 사이의 압록강과 송화강 분수계-대연지봉(2,359.5m)-무두봉 북쪽 1867m 고지-그 동쪽의 1,645m 고지-



그림 5. 「목극등 지도」(1712)

주: 「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 규장각 『輿地圖』(古4709-1) 수록. 원 표시 부분은 수계가 잘못 그려졌으며, 그림 6의 원 표시 부분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림 6. 「목극등 지도」의 두만강 최상류 부분 수계 수정

주: 「入地暗流」와 「水出」이라고 각각 표기된 물줄기들은 두만강과 연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송화강 수계에 속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신무성 서북쪽 1,669m 고지-장산령(1,422m)-두만강」에 이르는 압록강·송화강, 두만강·송화강의 분수계 위에 정계비와 같은 경계표지물들을 여러 개 세웠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단순하게 압록강·두만강의 최상류 분수계 위에 정계비를 세우고자 했다면, 대연지봉에 세웠어야 했다. 대연지봉은 압록강·송화강·두만강 등 세 강의 지표수 분수계가 된다. 그런데 목극등은 장군봉과 향도봉 사이에서 시작되어 내려오는 압록강·송화강의 분수계 상에 정계비를 세우고 나서, 압록강·두만강 최상류 분수계에 정계비를 세웠다고 생각했다. 결국 목극등이 세운 정계비의 위치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 목극등이 지목한 ‘초파’(무명수2)는 두만강에 유입되지 않으며, 송화강에 유입된다. ‘초파’는 두만강에 유입되는 제1파와 이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바이다.

셋째,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에서 ‘입지암류’(복류)하는 물이 ‘무명수2’의 수출구에서 ‘수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백두산의 복류 구조상 그러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현재 그것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 설사 ‘입지암류’ 시작지점에서 복류하기 시작하는 물이 ‘수출’에서 나온다 해도, 위에서 언급한 첫째와 둘째의 이유로 인해 목극등의 수계판단은 오류로 판정된다.

따라서 「목극등 지도」의 두만강 상류 수계는 그림 6의 원 표시 부분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이강원, 2016; 2017). ‘입지암류’라고 표시된 물줄기는 복류하다가 서류하는 물줄기에 연결되어 송화강의 지류가 되며, ‘수출’에서 나오는 물줄기 역시 두만강으로 이어지지 않고, 동북류하는 물줄기가 되어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려져야 한다. 이렇게 수정된 지도에서 ‘입지암류’와 ‘수출’이라는 글자만 제거하면, 압록강·백두산·두만강에 대한 비교적 사실적인 지도가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 오류는 임진정계가 근본적으로 지리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임진정계의 또 다른 문제는 조선측의 경계표지물 설치공사가 목극등

이 주문한 바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서 언급되는 두만강 상류의 여러 물줄기(水派)들을 오늘날의 물줄기와 대조하여 비정하기로 한다.

4) 두만강 상류 수계의 비정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을 통해, 백두산의 동쪽, 진장산 안쪽(남쪽) 두만강 상류에는 그 흐름이 비교적 분명한 4개의 물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장산(眞長山)은 오늘날 장산령(長山嶺)을 말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구획도」에는 원지(圓池) 동쪽에 있는 봉우리로, 「일제 지형도」에는 오늘날 ‘무포 냇시터(김일성 냇시터)’ 부근 대안의 고개로 표시되어 있다. 전자나 후자의 지도에 표시된 것이 모두 하나의 산줄기이므로, ‘장산령’을 두만강 상류로부터 홍기하(紅旗河)에 이르는 두만강 대안의 긴 산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허량·박도상이 진술에서 “미미하게 올라온 언덕이 있어서 그대로 이어져 진장산이 되고, 구불구불 무산까지 내려가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전자의 지도에 표시된 장산령이 ‘진장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의 내용을 「북한 지형도」 및 「일제 지형도」에 대조하여 수계를 비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초파

‘초파(初派)’와 ‘제1파(第一派)’는 의미상 같은 용어이다. 목극등의 입장에서는 ‘초파’가 곧 ‘제1파’이다. 목극등은 ‘초파’와 ‘제1파’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홍치중이나 허량·박도상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목극등이 “초파가 제2파와 합류한다.”고 본 것과 달리, 실제로는 ‘초파’가 ‘제2파’와 이어져 있지 않았다. ‘초파’와 ‘제2파’ 사이에 별도로 ‘제1파’가 있었으며, 이 물줄기는 ‘제2파’에 합류하지만, ‘초파’에는 이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초파’는 목극등이 처음 지목한 물줄기라는 의미이고, ‘제1파’는 두만강의 최상류, 가장 북쪽 물줄기라는 의미이다.

‘초파’는 목극등이 두만강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여 처음으로 두만강 원류라고 지목한 하천으로서, ① 최소한 허량·박도상이 1712년에 설치한 토퇴의 동쪽 바깥쪽에 있어야 하고, ② 수출처를 가지고 있으며, ③ 동북류 내지 북류하면서 다른 하천이 북쪽으로부터 합류해야 하고, ④ 미미한 언덕이 분수령을 이루어 두만강으로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⑤ 제1과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어야 하고, ⑥ 사봉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 가운데 앞의 4가지를 충족시키는 하천은 동봉수 동쪽 두 번째 지류, 필자가 ‘무명수2’라고 부르는 하천이다. ① 이 하천은 ‘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의 동쪽 마지막 토퇴로부터 동남쪽에 있다. ② 이 하천은 수출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토퇴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220m 지점이다. 「목극등 지도」에 ‘湧出(용출)’이 아니라 ‘水出(수출)’이라고 표기한 것은, 물이 ‘솟아 나온다’기보다 ‘흘러 나온다’ 또는 ‘새어 나온다’는 뜻이다. 필자의 답사 결과 무명수2가 지표유출을 시작하는 지점은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③ 이 하천은 동북류-북류하고 있으며, 「북한 지형도」에서 볼 때 수출처로부터 대략 11km 정도에서 서쪽으로부터 다른 하천이 합류하고 있다. 이 서쪽으로부터 합류하는 하천을 홍치중의 상소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다른 물(北來他水)”이라고 했는데, 이는 나침반의 방위와 지도상의 방위차인 도자각 때문이다. 자북을 도북으로 삼자면, 「북한 지형도」는 도자각(약 8°17′~8°29′)만큼 오른쪽(동쪽)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하천이 북쪽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무명수2’의 동쪽에 미미한 언덕 형태의 송화강·두만강 분수계가 지나다.

이상에서 검토한 ①~④의 조건만 보아도 무명수2가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하천의 수출처가 바로 「목극등 지도」에 ‘水出’이라고 표시된 지점이다. 또한 이 하천이 쌍목봉(쌍두봉) 기슭에서 ‘수출’하므로, 「목극등 지도」의 ‘甘土嶺(감토봉)’은 쌍목봉(쌍두봉)이다.

홍치중에 따르면, ⑤ 초파는 제1과의 북쪽에 있고, ⑥ 사봉의 아래에 있다. 홍치중의 언급에는 이 두 가

지 조건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원문은 “至於清差所指, 以爲江源入地伏流還爲湧出之水, 則在第一派之北十數里外沙峰之下”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번역은 「나아가 청차가 가리키며, “강원이 땅속으로 들어가 북류하다가 다시 용출하는 물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제1과의 북쪽 10수 리 밖 사봉의 아래에 있습니다.」이다. 이러한 번역에 따르면, 제1과의 후보가 되는 약류하와 모수림하로부터 “북쪽 10수 리 밖”, 곧 대략 “북쪽 11~19리” 정도에 사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지형도」와 답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1과의 후보가 되는 약류하나 모수림하 발원지의 나침반 방향 북쪽 “11~19리” 거리에는 눈에 들어오는 봉우리가 없다. 약류하(원지)나 모수림하 발원지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봉우리로는 쌍목봉(쌍두봉: 감토봉, 「북한 지형도」의 1,562m 고지), 장홍령(長紅嶺, 「북한 지형도」의 1,446m 고지), 장산령(「북한 지형도」의 1,422m 고지)이 보인다. 「북한 지형도」에서 이 봉우리들은 각각 약류하나 모수림하 발원지에서 각각 서·북·동에 위치한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서 나침반으로 측정하면, 도자각으로 인해 쌍목봉은 서북, 장홍령은 북동, 장산령은 동남에 위치한다.⁴²⁾ 홍치중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방향은 나침반에 의거한 것이므로, 사봉의 후보로는 쌍목봉(서북 방향)과 장홍령(동북 방향)만 남게 되며, 장산령(동남 방향)은 제외된다. 장산령을 홍치중이 이미 ‘진장산’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봉’이라는 별칭을 사용할 까닭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의 원문은 「나아가 청차가 가리키며, “강원이 땅속으로 들어가 북류하다가 다시 용출하는 물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제1과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으며, 사봉(沙峰)의 아래입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지리적 실제와 부합한다. 다시 말해서, 초파는 제1과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으며, 사봉 아래서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①~④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무명수2’가 쌍목봉 기슭에서 흘러나오므로, 사봉은 쌍목봉이며, 「목극등 지도」의 감토봉(甘土嶺)이다. 동시에 ‘무명수2’는 나침반 방향으로 보았을 때, 제1과의 후보가 되는 약류하와 모수림하의 북

쪽을 흐른다.

‘사봉(沙峰)’이라는 한자어는 ‘모래 봉우리’를 뜻한다. 1712년 당시 두만강 상류 방향 토퇴 설치 지역으로부터 백두산 정상부에 이르는 구간은 수목이 없는 일종의 ‘부석사막’이었다(이강원, 2016, 91-92). 듽성 듽성 풀과 이끼류가 자라고, 부분적으로 소량의 관목류가 분포하는 거의 사막에 가까운 경관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 속하는 쌍목봉을 홍치중은 “모래 봉우리”라고 부른 것이다. 이의복은 이를 가찰봉(加察峰)이라 하였는데, 이는 ‘거찰봉’ 곧 ‘거친 봉우리’ 내지 황무지 봉우리(荒峰)를 뜻한다. 수목이 없고 풀만 듽성 듽성 나 있는 황무지(‘부석사막’) 봉우리라는 것과 연관된 지명이다. 조선 후기의 몇몇 지도는 이 봉우리를 ‘가찰봉’과 유사한 음가를 따라 한자로 기록하고 있다. 이의복은 압록강변을 따라 올라가면서 ‘가차봉(可次峰)’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식생이 거의 없는 봉우리를 말한다.⁴³⁾ 당시 백두산은 정상부로부터 아래로 일종의 ‘부석사막’과 같은 황무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홍치중 상소와 하량·박도상 진술의 ‘초과’는 필자가 ‘무명수2’라고 부르는 하천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제1과

‘제1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초과’가 ‘제1과’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어야 하고, 또 ‘초과’와 ‘제1과’·‘제2과’ 합류처 사이에 8~9리의 간격이 있다. ② 제2과 용출처로부터 ‘8~9리 남짓’ 또는 ‘8~10리’ 하류에서 제2과에 합류하여야 하고, ③ 옆으로 나오는 세류여야 한다.

①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지형도」에서 필자가 ‘무명수2’라고 부르는 하천은 ‘제1과’의 후보인 약류하나 모수림하의 서북쪽에 있다. 그런데 홍치중은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지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명수2는 ‘제1과’의 후보인 약류하나 모수림하의 북쪽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무명수2는 ‘초과’가 ‘제1과’의 북쪽에 있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모수림하 발원지와 무명수2 수출처 사이의 직선거

리는 약 4.6km, 모수림하 발원지와 무명수2의 최소간격은 약 2.2km, 무명수2 수출처와 모수림하·홍토수(안심수) 합류처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6km, 무명수2와 모수림하·홍토수(안심수) 합류처 사이의 최소간격은 약 3.8km이다. 홍치중이 ‘초과’로부터 ‘제1과’까지의 거리를 “10수 리”라고 한 것은 ‘초과’ 수출처로부터 ‘제1과’ 수출처 내지 ‘제1과’·‘제2과’ 합류처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아마 그 중에서도 ‘초과’ 수출처로부터 ‘제1과’·‘제2과’ 합류처까지의 거리를 의미할 것이다). 허량·박도상이 “중간의 8~9리는 더 살펴볼 지 않고, 거듭하여 물을 따라 내려와 노은동산(대로운산)을 지나 어윤강의 사신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와서 모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 중의 이 ‘8~9리’는 ‘초과’로부터 ‘제1과’·‘제2과’ 합류처까지의 간격을 말한다. 허량·박도상은 1712년 5월 19일 ‘초과’와 ‘제1과’·‘제2과’ 합류처 사이를 살펴볼 지 않았고, 8월 초에 ‘초과’가 ‘제1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초과’와 ‘제1과’·‘제2과’ 합류처 사이의 최소간격을 8~9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홍치중이 “초과가 제1과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다.”고 한 것은 무명수2 수출처가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 4.5km, 모수림하·홍토수(안심수) 합류처로부터 약 6km 거리에 있다는 것과 부합하며, 허량·박도상이 언급한 “중간의 8~9리”는 무명수2와 모수림하·홍토수(안심수) 합류처 사이의 최소간격 약 3.8km에 일치한다. 따라서 홍치중, 허량·박도상의 ‘제1과’는 모수림하를 가리킨다.

한편 약류하 합류처로부터 무명수2 수출처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km, 약류하 합류처로부터 무명수2까지의 최소간격은 약 5.5km, 약류하의 원지(圓池)로부터 무명수2까지의 거리 역시, 최대 약 6.2km, 최소 약 3km 정도로 대략 ‘10수 리’ 내지 ‘8~9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극등 지도」에는 약류하가 표시되지 않았다. 목극등은 그 흐름이 미약한 약류하를 보지 못했거나 주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약류하를 목격했다고 해도 백두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두만강원으로 간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목극등 지도」에는 원지도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그의 답사경로가 원지를 통과하지 않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시에 원지가 오늘날과 같은 호수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지는 10세기로 추정되는 백두산 대분출 강하부 석 퇴적층 위에 형성된 호수이다. 따라서 물이 고이기 위해서는 유기물에 의한 이탄습지의 형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리학자들은 원지에 대한 이탄 단면 분석(泥炭剖面分析)을 통하여, 1400년 이전에는 소택화(沼澤化)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1400~1770년 사이에는 소택화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발육 정도가 매우 낮았고, 1770~1860년 사이에는 이탄의 퇴적 속도가 비교적 느렸으며, 1860~1910년 사이에는 이탄의 퇴적 속도가 빨랐고, 1910년 이후 현재까지는 소택이탄 형성과 소택화 역시 가속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張彥等, 2012, 275).

이러한 보고에 비추어 보면, 1712년에 원지는 지금과 같은 호수가 아니라 계절적으로 약간의 물이 고이는 하도 형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강희 황여전람도(康熙皇輿全覽圖)」(外文出版社影印本, 2007)에 아주 짧은 선으로 표시되었을 것이다(그림 7의 작은 원 표시 부분).⁴⁴⁾ 이 보고에서 1770년 이후 느리게 진전된 이탄 퇴적이 1860년 이후 가속화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을유감계(1885년)와 정해감계(1887년) 시기에는 이미 호수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해감계 1887년 5월 조선과 청이 합의하여 그린 「백두산정계비지도」(奎 26675)에 원지가 표시된 것은 이러한 지형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약류하가 제1과가 될 수 없는 근거는 「목극등 지도」와 「강희 황여전람도」의 대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희 황여전람도」(그림 7)에 ‘Tumen Giyang Sekiyen(투먼강 썬켄: 土門江源)’으로 표시된 물줄기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진 것처럼, 목극등이 백두산 정상부 호수 부근으로부터 시작하여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거쳐 ‘수출’에 이르는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두 지도를 단순히 대조하면,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물줄기의 방향과 「강희 황여전람도」에 표시된 물줄기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극등 지도」는 자북을 도북으로 한 것이고,⁴⁵⁾ 「강희 황여전람도」의 경선은 진

북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목극등 지도」를 「강희 황여전람도」와 대조하자면, 「강희 황여전람도」백두산 부분의 경선을 기준으로 「목극등 지도」를 왼쪽(서쪽)으로 자편각 만큼(대략 8°52′~8°54′ 정도)⁴⁶⁾ 기울여야 하고, 나아가 「강희 황여전람도」백두산 부분의 도북이 진북의 오른쪽에 있으므로,⁴⁷⁾ 「강희 황여전람도」의 도편각(약 8°30′)만큼 더 왼쪽(서쪽)으로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백두산 동사면 일대의 자편각(서편차 8°52′~8°54′)+「강희 황여전람도」의 도편각(동편차 8°30′)=17°22′~17°24′》이므로, 「목극등 지도」를 17°22′~17°24′만큼 왼쪽(서쪽)으로 기울여야 「강희 황여전람도」의 도북과 일치하게 된다. 그럴 경우, 목극등이 두만강원이라고 생각하고 「목극등 지도」에 표시한 「정계비-‘입지암류’ 시작지점-(북류)-‘수출’-‘제1과’-‘제2과’와 합류-두만강」에 이르는 물줄기는 「강희 황여전람도」에 ‘Tumen Giyang Sekiyen’으로 표시된 물줄기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강희 황여전람도」의 ‘Tumen Giyang Sekiyen’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처음 그린 지도에 목극등의 1712년 답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Tumen Giyang Sekiyen’으로 표시된 이 물줄기는 목극등의 답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목극등의 두만강 수계 인식 오류 역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산 지역의 수계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목극등 지도」의 수계 수정(그림 6)과 마찬가지로, 그림 8의 큰 원표시 부분과 같이 ‘Tumen Giyang Sekiyen’ 물줄기의 수계를 수정해야 한다.

만약 목극등이 약류하를 ‘초과’와 이어져 ‘제2과’로 들어가는 소류(‘제1과’)로 보았다면, 「강희 황여전람도」에 ‘Tumen Giyang Sekiyen’으로 표시된 물줄기는 약류하 시작점에 이어져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므로, 약류하는 ‘제1과’가 아니다.⁴⁸⁾

②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과’는 ‘제2과’ 용출처로부터 하류로 ‘8~9리 남짓’ 또는 ‘8~10리’ 떨어진 지점에서 ‘제2과’와 합류하여야 한다. 「북한 지형도」에 ‘안심수’⁴⁹⁾로 표시된 하천의 길이가 지도상 평면거리 대략 4km 정도로, 대략 8~9리 남짓 또는 8~10리의 길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과’는 오늘날 북·중 조약 지명의 ‘홍토수’, 북한 지리학자들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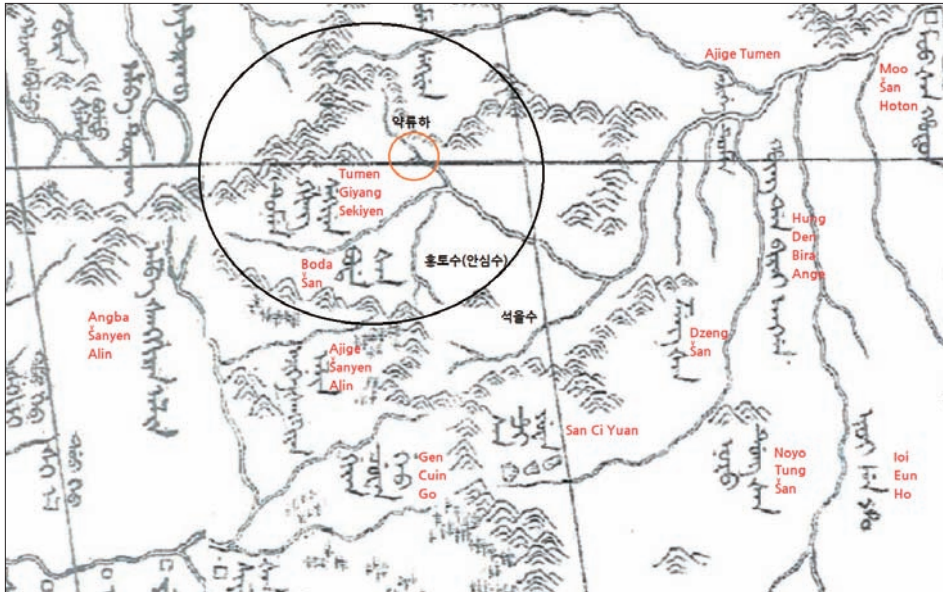


그림 7. 「강희 황여전람도」의 백두산 지역

주: 中國 外門出版社 影印本(2007). 작은 원 표시 부분이 원지(圓池)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로마자 표기는 필자에 의한 것이며, 만주어 필렌도르프 전사 방식을 따랐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Angba Sanyen Alin(大白山: 장백산: 백두산), Tumen Giyang Sekiyen(土門江源), Boda San(甫多山: 포태산), Aijige Sanyen Alin(小白山), Gen Cuin Go(乾川溝), San Ci Yuan(三池淵), Aijige Tumen(小土門), Dzeng San(甌山), Noyo Tung San(蘆隱東山), Hung Den Bira Ange(紅丹河口), Ioi Eun Ho(漁潤河), Moo San Hoton(茂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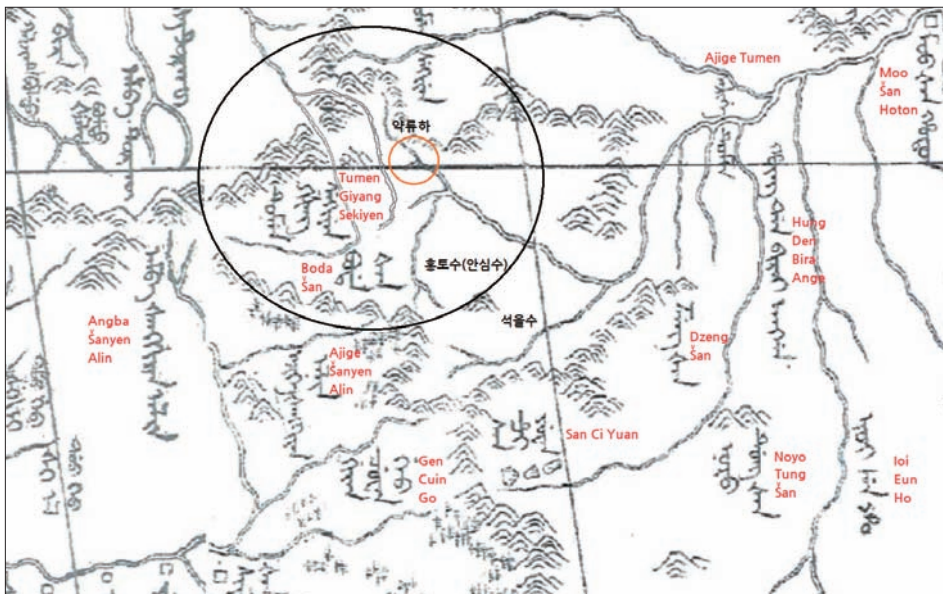


그림 8. 「강희 황여전람도」 백두산 지역 수계의 수정

주: 「목극등 지도」의 수계 수정과 마찬가지로, 큰 원 표시 부분에서 'Tumen Giyang Sekiyen'으로 표시된 물줄기를 수정하였다.

무성수', 「북한 지형도」의 '안심수'를 가리키며, 이 하천과 합류하는 모수림하가 바로 '제1과'이다.

③의 조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따르면, '제1과'는 "가로로 나온 세류(細流)"이다. 『비변사등록』에 "허량이 그려 온 지도가 있는데, 이것이 작아서 살피기에 불편하여, 잘 그리는 자로 하여금 그 지도에 따라 허량과 상의하여 고쳐 그리게 하였고, 별단과 더불어 제출하여 살펴보시도록 준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허량이 자신이 가지고 온 지도를 앞에 두고 설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과'가 "산골짜기 수리쯤에서 가로로 나온 세류"라는 것은 이 하천이 지도상 가로 방향, 곧 서-동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1과'의 후보가 되는 약류하와 모수림하 중 하천의 전체적인 형태가 동-서 방향인 것은 모수림하이다. 약류하는 북쪽에서 남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의하면, '제1과'는 그보다 남쪽에 있는 '제2과'보다 흐름이 가늘다. 반면 오늘날 정상유출 기간에 모수림하는 홍토수(안심수)보다 유량이 크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화자는 '제1과'를 이름 그대로 흐름이 약한 약류하(弱流河)로, 제2과를 모수림하로 비정한다. 그러나 1712년 모수림하·홍토수(안심수)·약류하의 상황은 지금과 달랐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지에는 오늘날과 같은 크기의 호수가 형성되지 않았고, 약류하의 흐름도 지금보다 미약했을 것이다. 또한 정상유출이 진행되는 시기에 홍토수(안심수)의 유량이 모수림하보다 컸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추정된다.

지금이나 당시나 모수림하와 홍토수(안심수)는 눈석임이나 비가 오는 계절에만 지표유출이 일어나는 계절하천 내지 임시하천이다. 두 하천 모두 양력 5월~9월 사이에 정상유출이 이루어지는데, 용설수나 빗물이 부석층으로 스며들어 복류하다가 솟아나는 용출수가 지표유출의 근원이 된다. 두 하천 모두 양력 10월~4월까지의 고갈된다(백두산총서편찬위원회, 1992, 백두산 수문).⁵⁰⁾ 쌍목봉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수림하의 집수구역은 홍토수(안심수)보다 작다. 북한의 지리학자들이 「대연지봉과 무두봉 사이에서 발

원-도망강(망류 및 지표유출과 복류의 반복)-신무성-신무성수-복류-안신무수-복류-홍토수(안심수)-모수림하 합류점-약류하 합류점」에 이르는 하천을 두만강 원류(正源)로 보고 있듯이, 홍토수(안심수)의 집수구역은 모수림하보다 크다. 따라서 복류수의 용출량과 눈석임이나 강우시 지표유출량은 원래 홍토수(안심수)가 모수림하보다 컸을 것이다.

허량·박도상이 경계표지물 종점 부근에 대해 "수목이 하늘에 닿아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으므로, 1712년 모수림하나 홍토수(안심수) 주변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삼림이 상당히 침투해 있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모수림하의 집수구역 대부분에 이미 삼림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모수림하의 유량은 1712년이나 현재나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712년 당시 홍토수(안심수) 구간 위쪽(대연지봉·무두봉 사이-안신무수 구간)에는 삼림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복류수의 용출량과 눈석임이나 강우시 지표유출량은 지금보다 컸을 것이다. 이후 「대연지봉·무두봉 사이-안신무수」 구간에 삼림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유물건곡'이 형성되었으며, "복류수의 대부분이 산천수(湧水) 쪽으로" (백두산총서, 1992, 수문) 흐르게 되었다. 을유감계(1885년)와 정해감계(1887년) 시기에 이르면, 홍토수(안심수)가 모수림하보다 물 흐름이 확연하게 가늘게 되었다. 때문에 이중하는 홍토산수(홍토수) 원류(正源)를 오늘날 모수림하로 불리는 물줄기로 보았던 것이다. 현재는 신무성이라는 취락이 발달했으며, 모래채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홍토수(안심수) 하류에는 북한군 병영이 설치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복류량이 감소했으며, 최종적으로 용출량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1712년 당시에는 홍토수(안심수)가 모수림하보다 유량이 많았다는 것은 충분히 추정가능한 일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1과'가 모수림하라는 결론에 다가설 수 있다. 모수림하가 '제1과'라는 보다 확실한 결론은 '제2과'를 비정하면서 얻을 수 있다.

(3) 제2과

'제2과'가 홍토수(안심수)라는 점은 앞서 '제1과'를 비정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발원지로부터 ‘제2과’ 합류점까지 ‘8~9리 남짓’ 또는 ‘8~10리’여야 하고, ② 용출하는 발원지가 있으며, ③ ‘제2과’ 용출처는 ‘초과’와 ‘10리 남짓’ 떨어져 있어야 하고, ④ ‘제1과’가 유입되어야 하며, ⑤ ‘초과’로부터 다른 물을 거치지 않고 곧장 원두(源頭: 발원지) 아래 4~5리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그 용출처가 ‘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의 배치 방향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

①의 조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북한 지형도」에 나타난 약류하의 길이는 약 3km이다. 모수림하가 홍토수(안심수)와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까지의 하천 길이는 약 3.2km이다. 「북한 지형도」에서 모수림하의 하도는 쌍목봉 방향으로 상류가 더 길게 그려져 있지만, 필자가 직접 우중에 답사한 바에 따르면, ‘유물건곡’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강우에도 불구하고 지표유출을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모수림하의 발원지는 그림 9, 12, 15, 16에 표시된 지점이다. 홍토수(안심수)가 모수림하와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홍토수(안심수) 용출처까지의 하천 길이는 대략 4km이다. ‘제2과’의 길이가 ‘8~9리 남짓’ 또는 ‘8~10리’라고 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만약 약류하가 ‘제1과’라면,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의 하도 길이는 대략 6.2km이므로, 이는 ‘제2과’의 길이가 ‘8~9리 남짓’ 또는 ‘8~10리’라고 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천의 길이로 보아 홍토수(안심수)가 ‘제2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의 조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북한 지형도」상에 표시된 홍토수(안심수)를 거슬러 올라가면, 실선이 점선으로 변한다. 점선의 상류 끝 지점의 좌표는 대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 지점이다. 이 지점에 용출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통해 이 지점으로부터 약 100m 서쪽에 건물이 확인되는데, 이 건물의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수원지가 바로 홍토수(안심수)의 용출처, 곧 ‘제2과’의 용출처일 것이다.

③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과’ 용출처는 ‘초과’와 10리 남짓 떨어져 있어야 한다. 홍토수(안심수)의 용출처로부터 ‘무명수2’ 수출처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약 4.1km 정도로 대략 ‘10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무명수2 수출처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는 약 4.6km, 모수림하와 홍토수(안심수) 합류점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6km로서 ‘10리’를 크게 벗어난다. ④의 조건은 1712년 당시 제1과가 제2과에 합류한다고 하였는데, 모수림하가 홍토수(안심수)에 합류한다.

⑤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극등은 초과로부터 다른 물을 거치지 않고, “제2과 물 흐름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아래로 4~5리 되는 지점에 곧장 이르렀다.”고 하였다. 목극등이 제2과 시작점 아래 4~5리 지점에 도착했다가 다시 4~5리를 내려가 ‘제1과’가 ‘제2과’에 합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므로, ‘제2과’의 길이는 8~10리 정도이다. 이는 “제2과 용출처를 버리고 제1과와 제2과의 합류점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은 8~9리 남짓 하류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제2과의 길이에 부합하는 하천은 홍토수(안심수)이다.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의 하도 길이는 대략 6.2km이기 때문에, 모수림하를 ‘제2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추론을 진행해보기로 한다. 첫째, 만약 약류하가 ‘제1과’이고,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제2과’이며, 목극등이 초과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남쪽을 지나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4~5리(대략 2km 전후) 지점을 건넜다면, 이 경우 목극등은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기 위해 모수림하를 한 번 더 건너야 한다. 이것은 ‘제2과’를 한 번 건넌 것으로 표시된 그의 지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만약 약류하가 ‘제1과’이고,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제2과’이며, 목극등이 초과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남쪽을 지나 약류하 합류점으로부터 상류 4~5리 지점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 목극등은 홍토수(안심수)를 지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시 모수림하를 두 번 건너야 한다. 이 또한 ‘제2과’를 한 번 건넌 것으로 표시된 그의 지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만약 약류하가 ‘제1과’이고,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제2과’이며, 목극등이 초과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북쪽을 지나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4~5리 지점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 또한 홍토수(안심수)를 지나지 않을 수 없으며, 목극등이 ‘초과’로부터 ‘제2과’ 중간으로 “곧장 왔다(直到)”는 것과도 다르다. 또한 이 경로를 지나는 동안 ‘초과’(무명수2)와 약류하 사이의 분수령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무명수2와 약류하(원지)가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목극등 지도」 및 허량·박도상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만약 약류하가 ‘제1과’이고,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제2과’이며, 목극등이 무명수2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북쪽을 지나 약류하 합류점으로부터 4~5리 지점(적봉의 약간 서쪽)에 이르렀다면, 이 역시 무명수2와 약류하 사이의 분수령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 중이 네 번째 추론이 그나마 약류하가 ‘제1과’이고, 모수림하가 ‘제2과’라는 주장에 근접한다. 그러나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초과’로부터 ‘제2과’ 원두(용출처) 아래 4~5리 지점에 “곧장(똑바로) 왔다.”⁵¹⁾ 했으므로,

모수림하 발원지를 북쪽으로 빙 돌아 홍토수(안심수) 합류점으로부터 약류하 합류점 사이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섯 번째, 만약 약류하가 ‘제1과’이고,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하도 길이 8~10리의 ‘제2과’이며, 홍토수(안심수)의 수량이 매우 작거나 없었고, 목극등이 무명수2 수출처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와 약류하 합류점 사이의 중간(양쪽에서 4~5리 지점)에 곧장 이르렀다면, 이는 「목극등 지도」와 달리 제2과를 건너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물줄기 및 동선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상의 추론을 통해, 목극등이나 허량·박도상 및 홍치중이 약류하를 ‘제1과’로, 모수림하를 ‘제2과’로 보았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수림하를 ‘제1과’로 홍토수(안심수)를 ‘제2과’로 보았다.

1712년 5월 19일 목극등은 ‘초과’(무명수2) 수출처 부근을 지나면서, 초과가 장산령에서 장홍령을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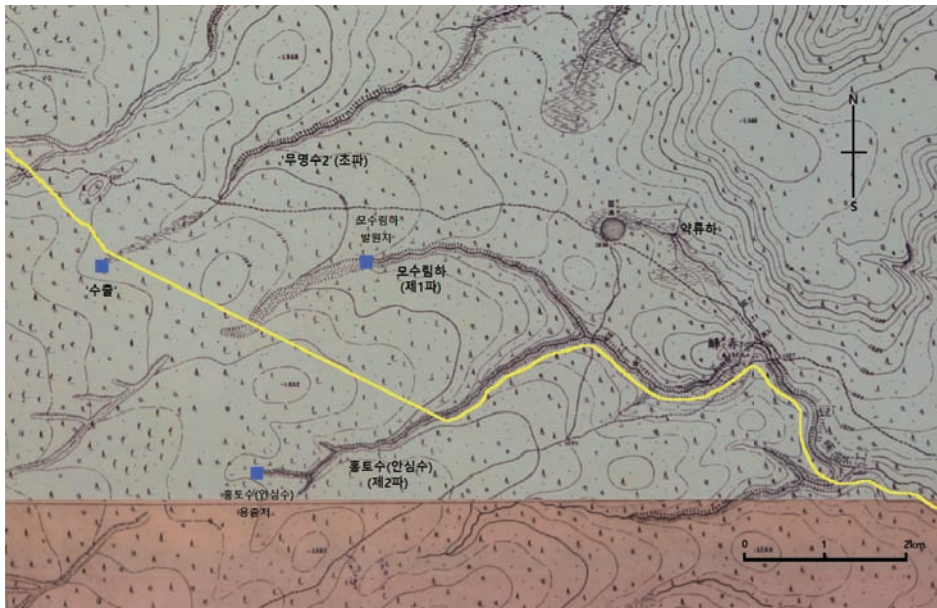


그림 9. 「일제 지형도」의 두만강 최상류 수계와 목극등의 경로

주: 실선은 목극등이 지나간 경로의 개념적 표현이다. 한편, 「일제 지형도」에는 오늘날의 약류하가 ‘紅土水’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간도협약 이래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도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쳐 북쪽으로 달리는 산줄기에 막혀 북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곧장 홍토수(안심수) 용출처 아래 4~5리 지점에 이르렀고, 이후 물줄기를 따라 4~5리를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한 물줄기가 합쳐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전에 본 초과가 흘러와 합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후 다시 물줄기를 따라갔으나 흐름이 미약했을 약류하는 보지 못했거나 주의하지 않았다.

⑥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의 언급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홍토수(안심수)가 '제2과'라는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는 '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의 방향(그림 15, 16 참조)이다. '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의 동쪽 절반이 홍토수(안심수)의 용출처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그에 이어졌던 목적은 홍토수(안심수)에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제2과'가 신무성수-안신무수의 하류 최후 용출처로부터 지표유출이 시작되는, 북·중 조약지명의 '홍토수', '북한 지형도'의 '안심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과 용출처'가 경계표지물의 종점이므로, 경계표지물 종점의 위치는 대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 지점이다.

(4) 제3과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따르면, '제3과'는 송태선(宋太善)이 찾아낸 것이고, 「목극등 지도」에 그려지지 않았다. 김지남의 『북정록』 5월 21일 기록에 "송태선 등이 말한 세 물줄기가 솟아난다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다. 또한 박종의 「백두산유록」 5월 20일 기록에도 "갑산 엽부(獵夫) 송태선"이라는 표현이 있다.

조선 조정은 임진정계의 준비를 위하여, 1712년 3월 6일 북병사 장한상(張漢相)과 남병사 윤각(尹愨)에게 명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의 수원을 조사하도록 하였다.⁵²⁾ 4월 7일 그들이 그린 지도가 조정에 도착하였는데, 윤각의 보고는 의거할 만한 것이 있는데, 장한상의 보고는 두만강의 실제와 어긋났다고 보았다.⁵³⁾

점반사 박권은 「북정일기」에서 5월 3일 인차외만호 이중창(李重昌)과 혜산첨사 정사의(鄭思義)가 두만강과 압록강의 수원을 조사한 후 와서 인사하였다

고 하였는데, 인차외만호와 혜산첨사는 갑산부 소속이었으므로, "갑산 사냥꾼" 송태선을 길잡이로 삼아 수원을 조사한 것이다. 5월 15일 함경감사 이선부가 "다시 혜산 첨사로 하여금 두만강원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더니, 강원은 백두산 산꼭대기 중간에서 나와 거의 80~90리 흐름이 끊어졌다가 감토봉(甘土峰) 아래 1식(息: 30리) 정도 되는 곳에 이르러 비로소 땅 구멍 속에서 모두 3과가 용출하여 두만강이 된다고 합니다."⁵⁴⁾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급보하였는데, 이는 인차외만호 이중창과 혜산첨사 정사의의 그리고 갑산 사냥꾼 송태선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따라서 허량·박도상이 말한 '제3과'는 송태선이 발견했다고 했으므로, 이선부의 이 보고에 묘사된 물줄기가 '제3과'라고 할 수 있다.

홍치중의 상소에는 '제3과'를 북우후 김사정(金嗣鼎) 등이 추후로 살펴본 것이라고 했는데, 박권의 「북정일기」 5월 8일자에 "북우후 김사정이 두만강 원류를 조사할 때 걸어가는 것을 꺼려 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또한 칭병하고 인사도 오지 않았다. 감사가 북우후를 잡아들여 곤장 20대를 쳤다."⁵⁵⁾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홍치중이 '제3과'에 대해 "북우후 김사정 등이 '추후'로 살펴본 것"이라고 한 것은 장한상의 '제4과' 조사 시도에 뒤이어서 살펴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점으로 보아 김사정의 '제3과' 조사는 인차외만호 이중창과 혜산첨사 정사의·갑산사냥꾼 송태선 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조사와 동일한 사건이다. 김사정이 태만했기 때문에, 허량·박도상과 김지남은 사냥꾼 송태선이 찾은 것으로 보았고, 홍치중은 조사 임무 계선상 송태선의 상관인 북우후 김사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듯 허량·박도상이 말하는 '제3과'와 홍치중이 말하는 '제3과'는 발견의 경위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천이다.

그러나 「목극등 지도」 상에서 볼 때,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은 '제3과'를 각각 다른 물줄기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홍치중은 「목극등 지도」에 '제3과'가 그려지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그가 대홍단수를 '제4과'로 보고 있다는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제3과'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진 두만강 상류로부터 세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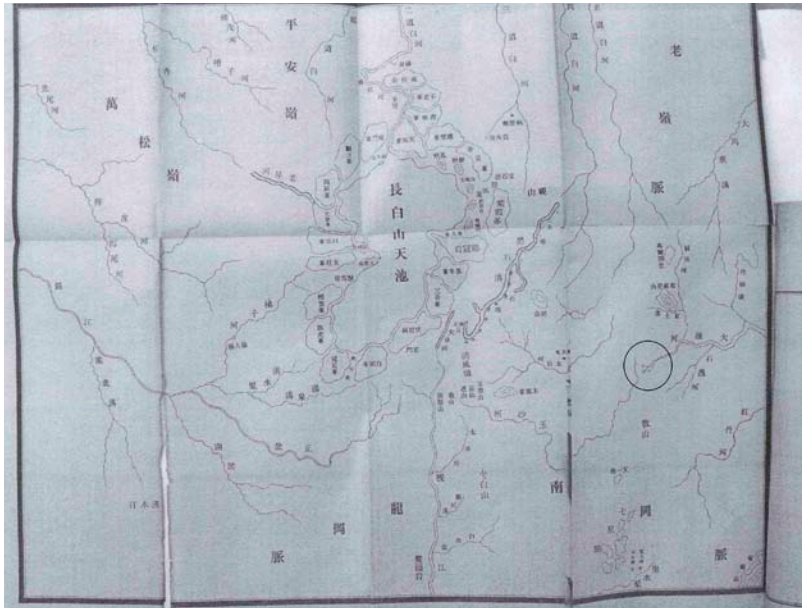


그림 10. 유건봉의 『장백산강간지략(長白山江岡志略)』에 실린 지도

주: 필자가 산천수(용수천)로 비정하는 ‘大浪河’의 발원(원 표시 부분)이 3개의 샘으로 표시되어 있다.

물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선부의 보고에서 언급된 하천은 감토봉 아래 1식(30리) 정도 되는 곳에서 땅 속에서 솟아나오고, 3파(派)가 용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천은 산천수(용수천: 유건봉의 ‘大浪河’)이다. 산천수의 발원지는 쌍목봉으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약 12~13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1식(30리)’에 부합한다. 유건봉의 지도(그림 10)에는 석을수에 합류하는 대랑하(大浪河)가 3개의 샘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석을수에 가장 가까운 북쪽 하천이 산천수이다. 따라서 이선부의 급보에서 ‘3파(三派)’는 허량·박도상, 홍치중 등이 말하는 ‘제1파’, ‘제2파’, ‘제3파’가 아니라, 3개의 땅 구멍에서 나와서 산천수(용수천: 대랑하)를 이루는 각각의 물줄기를 말한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산천수’라는 지명은 아마도 ‘三泉水(삼천수)’를 중국어 발음, 곧 “싼취엔-수이(싼첸-수)”로 읽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 개의 샘에서 하천이 시작된다는 것을 반영했을 것이다. 때로 이 하천을 ‘용수천’이라 표시한 북한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한자로 “湧水川(또는 湧水泉)”이라고 표기할 것이다. 모두 산천수 발원지의 ‘용출’이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지명이다. 현재는 두만강 본류와의 합류 지점에 댐을 막아 산천어(山川魚)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하천은 유량이 석을수보다 크지만, 길이는 석을수보다 작다.

허량·박도상의 ‘제3파’는 산천수(용수천: 대랑하)이며, 홍치중은 자신이 북우후 김사정이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제3파’를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두만강 상류 세 번째 물줄기, 곧 석을수로 착각하였다.

(5) 제4파

‘제4파’에 대해 허량·박도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제1파’와 ‘제2파’의 합류점으로부터 20리를 내려가 지속했다고 하였다. 「목극등 지도」의 두만강 상류 물줄기 중 위로부터 두 번째 물줄기와 세 번째 물줄기 사이의 두만강 본류 서남안에 표시된 지속지점이 그곳이다. 허량·박도상에 따르면, 「목극등 지도」에 ‘제3파’(산천수: 용수천)가 그려지지 않았으므로, 이 지도의 이 세 번째 물줄기가 바로 허량·박

도상이 말하는 ‘제4파’이다. ‘제1파’(모수림하)와 ‘제2파’(홍토수(안심수)) 합류점으로부터 석을수의 두만강 본류 합류점까지의 거리는 하도를 따라 대략 11km 정도이다. 목극등 일행이 두만강 하도에 바짝 붙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내려가다가, 석을수에 못 미친 지점에서 지속하였을 것이므로, 5월 19일 제1파(모수림하)와 제2파(홍토수(안심수)) 합류점으로부터 이 지속 지점까지의 거리는 11km에 미치지 못하는 대략 8~9km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속지점 남쪽에 있는 물줄기는 석을수(石乙水)이다.

한편, 홍치중은 “제4파는 북병사 장한상이 맨 처음 가서 살펴보다가 빙설에 막혀 전진하지 못한 곳”이라고 하였다. 앞서의 『숙종실록』 38년(1712) 4월 7일 기록에 따르면, “장한상의 보고는 두만강의 실제 상황과 어긋났다.” 여기서 실제상황과 어긋났다는 것은 장한상이 조사한 물줄기보다 더 북쪽의 물줄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홍치중이 말한 ‘장한상이 조사한 제4파’는 산천수 아래의 석을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박권의 「북정일기」 5월 13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윤강(서두수)에서 유숙하였다. …주인 원익성…말하기를, “북병사(장한상)가 올린 지도 중에 이른바 두만강은 곧 대홍단수이고, 두만강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물줄기가 백두산에서 흘러나와서 남중산의 북쪽으로 조금 아래에서 합쳐지는 것이 곧 진짜 두만강인데, 이 강을 상세히 아는 자는 주민 채진귀와 한치익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날 밤에 글을 써서 감사에게 보고하였다.⁵⁶⁾

이 기록에 따르면, 홍치중이 언급한 ‘제4파’는 대홍단수이다. 그러나 허량·박도상은 「목극등 지도」에 ‘제3파’(산천수: 용수천)가 그려지지 않았다고 했고, ‘제4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목극등 지도」의 대홍단수 바로 위쪽 물줄기, 곧 석을수를 ‘제4파’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원익성이 말하는 ‘남중산의 북쪽으로 조금 아래에서 합쳐지는 물’은 석을수이다.

(6) 제1파·제2파·제3파·제4파 비정의 소결

이상의 논의를 수계를 수정한 「목극등 지도」에 대입하면 그림 11과 같다. 홍치중, 허량·박도상이 언급한 ‘초파’는 A를 말하며, 필자가 ‘무명수2’라고 부르는 물줄기를 가리킨다. ‘제1파’는 B 물줄기로서, 모수림하를 가리키며, ‘제2파’는 C 물줄기로서, 홍토수(안심수)를 가리킨다. 허량·박도상에 따르면, ‘제3파’(산천수: 용수천)는 「목극등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제4파’는 D 물줄기이며, 석을수이다. 반면 홍치중의 ‘제3파’는 D 물줄기, 곧 석을수이며, ‘제4파’는 E 물줄기, 곧 대홍단수이다.

한편, 조선측이 발견한 두만강 최상류 물줄기가 가장 남쪽의 대홍단수, 그보다 북쪽의 산천수(용수천: 대량하), 다시 그보다 북쪽의 홍토수(안심수) 및 모수림하로 바뀌는 것은 탐사의 시기와 관련된다. 장한상은 음력 3월 중순, 김사정과 송태선은 5월 초순, 박도상과 갑산사람은 5월 19일에 각각 자신들이 발견한 물줄기에 도달하였고, 그것들을 각각 두만강의 최상류로 보았다. 남쪽에서부터 북쪽 순으로 눈이 녹으므로, 여름이 가까울수록 두만강 최상류의 발견은 북쪽으로 진전되었던 것이다.

(7) 단류처~용출처 사이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소류 5~6파

허량·박도상은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에 소류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 5~6파, 용출처로부터 남중산(南甌山)까지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소류가 4~5파”라고 하였다. 이 대목의 서술 스케일로 보자면, ‘5~6파’가 황화송전자로부터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 사이에 있는 사을수(斜乙水) 및 동봉수 수계의 물줄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의 진술을 읽어보면, 그 전체 내용이 경계표지물의 중점 구역, 곧 동봉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와 두만강 상류 구역(모수림하, 홍토수(안심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홍치중의 공사지침에 따라, 무명수2 수출처 못 미친 지점, 즉 그 직전의 어느 지점까지는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했으므로, “5~6파”는 무명수2 수출처 동쪽에 있어야 한다. 따라



그림 11. 수계 수정 「목극등 지도」에 표시한 수파(水派)

주: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의거하여 표시한 것이다. a-초과 수출처, A-초과(무명수2), B-제1과(모수림하), C-제2과(홍토수(안심수)), D-제4과(석울수), E-대홍단수, F-광평구, M1-중산(남중산), M2-대로운동산(노은동산). 제3과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지지 않았다.

서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를 다른 방식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류처’는 말 그대로 ‘물 흐름이 끊어진 곳’ 이이며, ‘용출처’는 ‘물이 솟아나는 곳’이다. 임진정계 관련 기록에서 ‘단류처’가 언급되는 대목은 이 곳 외에 두 곳이 더 있다. 하나는 『숙종실록』 38년(1712) 6월 3일자에 기록된 박권·이선부의 치계(급보)에서 목극등이 산도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를, “수원의 단류처(斷流處)가 이처럼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아 표지를 세우지 않는다면, 피차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목책으로 한계를 정함이 어떻겠는가?”라고 한 대목에 나오는 ‘단류처’이다. 여기서 ‘단류처’는 문맥상 ‘입지암류’ 시작지점(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해발고도 약 1,840m 지점) 으로부터 ‘수출’ 지점(무명수2의 수출처 해발고도 약 1,340m) 까지를 말한다(그림 11의 ‘목극등의 단류처’).

다른 하나는 홍치중이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잘못 짚은 강원은 비록 우리가 마음대

로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류가 어떠한지는 논할 것 없이 단류처(斷流處) 이상은 진실로 마땅히 경계표지물 설치 범위 중에 있어야 하니, 먼저 정계비를 세운 곳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되, …이른바 수출처 못미쳐, 잠시 역사를 정지하고 돌아가기로 한다.”라고 한 대목에 나오는 ‘단류처’이다. 이 ‘단류처’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초과’(무명수2) 수출처까지를 ‘단류처’로 보는 것인데, 이는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이 목극등의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황화송전자 부근으로 보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림 11의 ‘단류처1’). 둘째, ‘초과’(무명수2)와 ‘제1과’(모수림하) 발원지 사이의 ‘단류처’이다. 목극등은 ‘초과’(무명수2)와 ‘제1과’(모수림하)가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1712년 8월 초에 조선측 실무자들이 경계표지물 설치를 위해 조사해보니, ‘초과’(무명수2)와 ‘제1과’(모수림하)가 끊어져 있었다. 이 구간은 기록에 명시적으로 ‘단류처(斷流處)’라는 용어로 언급되지 않지만,

문맥상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이 ‘단류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단류처’는 ‘무명수2’와 모수림하 사이를 가리킨다(그림 11의 ‘단류처2’).

‘단류처’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홍치중이 언급한 ‘단류처’는 ‘황화송전자~초과(무명수2) 수출처’ 구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떤 의미의 ‘단류처’를 택하건, 홍치중이 “수출처 못미처, 잠시 역사를 정지하고 돌아가기로 한다.”고 했으므로,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를 거쳐 무명수2 수출처」로 설치해 내려오는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무명수2 수출처에 연결하지 않고 그 직전에서 정지하라고 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허량·박도상이 언급한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에 소류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 5~6파이다.”에서 ‘단류처’와 ‘용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이 언급한 ‘단류처’에 대해, 홍치중의 ‘단류처’와 마찬가지로, ‘황화송전자~무명수2 수출처’로 보는 것과 ‘무명수2~모수림하 발원지’로 보는 것,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들이 진술에서 언급한 ‘용출처’들은 ‘초과’(무명수2) 수출처와 ‘제2과’(홍토수(안심수)) 용출처 두 가지 의미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⁵⁷⁾ 곧 이

들은 ‘수출처’와 ‘용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용출처’로 지칭하고 있다. 홍치중이 “수출처 못미처, 잠시 역사를 정지하고 돌아가기로 한다.”라고 한 것을 허량·박도상은 “(홍치중이) 용출처에 이르러서는 잠시 공사를 멈추라.”고 말했다고 했으므로, 허량·박도상이 이 대목에서 언급한 ‘용출처’는 홍치중이 언급한 ‘수출처’와 같다. 곧 ‘초과’(무명수2) 수출처를 가리킨다.

그런데,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에 소류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 5~6파이며, 용출처로부터 아래로 남중산까지 소류가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4~5파”라는 대목의 ‘용출처’는 문맥상 ‘제2과’(홍토수(안심수))용출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언급 중의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는 ‘무명수2 수출처~홍토수(안심수) 용출처 사이’ 또는 ‘무명수2와 모수림하 발원지 사이의 최소간격(‘단류처2’~홍토수(안심수) 용출처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결국, 무명수2 수출처, 홍토수(안심수) 용출처, 모수림하 발원지와 그로부터 최소간격에 있는 무명수2 하도를 잇는 4각형 내의 구역을 의미한다(그림 12 참조).

허량·박도상에 따르면, 이 구간은 “수목이 하늘에 닿아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곳”이며, “소류가 혼잡



그림 12. 단류처~용출처 사이에서 북으로 향하는 소류 5~6파의 위치

주: Google Earth(2007)에 표시함. 도화선 도로 중간의 작은 사각형은 암거 및 소형 교량의 위치이며, 이것들을 통과하는 물줄기가 허량·박도상이 말하는 ‘북쪽으로 향하는 소류 5~6파’로 추정된다. 분수계는 「북한 지형도」에 근거하여 표시하였다.

한 곳”이다. 이곳에 북쪽으로 향하는 5~6 갈래의 작은 물줄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형도」나 「일제 지형도」(1933년)에는 물줄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답사과정에서 이 구간에 수목이 울창하고, 하도가 망류(網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화선 도로의 ‘무명수2 다리’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근처에 이르는 구간에서 도로 밑에 놓인 암거(暗渠) 내지 소형 교량이 6개임을 발견하였다.⁵⁸⁾ 도화선 도로 밑에 암거 내지 소형 교량이 있다는 것은 도로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작은 물줄기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허량·박도상이 말한 “5~6과”의 작은 물줄기”와 대략 일치한다.

이 물줄기들은 폭우나 눈석임 시기에만 관찰되며, 평소에는 물 흐름이 거의 없이 드문드문 분포하는 습지처럼 보였다. 그 중 송화강·두만강 사이의 분수계 서북쪽에 있는 암거의 숫자는 2개였다. 이 물줄기들은 분수계 서북쪽에 있으므로 송화강 유역에 속한다. 필자의 답사 중 강도 높은 강우로 인해서인지 비교적 뚜렷한 물줄기가 이루어졌다. 분수계 동남쪽에 있는 물줄기들도 북류하지만 매우 낮은 분수령에 막혀있으며, 강도 높은 강우시기에는 비교적 뚜렷한 물줄기가 이루어졌지만, 모수림하나 약류하 또는 홍토수(안심수)에 이어지지도 않으며, 최종적으로 부석층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허량·박도상은 이 “5~6과”를 언급한 후, “훗날 차사원이 잘못 알고 북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책을 설치한다면, 앞날에 걱정이 없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이는 훗날 차사원이 북쪽으로 향하는 이 5~6과 중에 북류하여 송화강 수계에 속하는 것에 목책을 연결한다면, “저들의 땅”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류하다가 분수령에 막혀 부석층으로 사라지는 물줄기에다 목책을 설치하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물줄기가 뚜렷하고 동류(자북기준)하여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홍토수(안심수)’에 목책을 연결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허량·박도상이 언급한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에 북쪽으로 향하는 소류 5~6과”

는 황화송전자로부터 ‘제2과’(홍토수(안심수)) 용출처 사이에 있는 사을수(斜乙水) 및 동봉수 수계의 물줄기들로 볼 수도 있지만, ‘초과’(무명수2)와 ‘제2과’(홍토수(안심수)) 사이를 흐르는 5~6개의 희미한 물줄기로 보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8) 용출처~남증산 사이에서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소류 4~5과

허량·박도상은 “용출처로부터 남증산(南甌山)까지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소류가 4~5과”라고 하였다. 여기서 용출처는 자신들이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제2과’ 용출처, 곧 홍토수(안심수) 용출처를 말하며, 남증산은 오늘날 대흥단군의 증산(甌山)을 말한다.⁵⁹⁾

현재 입수할 수 있는 「북한 지형도」는 증산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제 지형도」(1933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도에는 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부터 증산에 이르는 사이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8개의 하천표시가 있다(그림 13).

이 하천들 중 물 흐름이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는 ③ 산천수(용수천), ④ 석을수(상도랑수: 上トランス), ⑤ 적개골수(무포수: 하도랑수(下トランス)). 그리고 증산 북북서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⑦과 ⑧이 있다. 이 5개의 물줄기들이 『백두산총서』의 『백두산지도첩』에 수록된 「자연지도」(그림 14)에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그것들의 물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4~5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제1과·제2과는 목극등 차관의 지도에 들어가 있고, 제3과는 감영에서 이전에 올린 지도에 첨가되었으며, 긴요치 않은 소류 2~3과는 지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 것에서 ‘긴요치 않은 소류 2~3과’가 허량·박도상이 말하는 두만강의 최상류 구역, 곧 제2과와 제3과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들은 「일제 지형도」의 ①과 ②일 것이다. 여기에 ③ 산천수(용수천: 허량·박도상의 ‘제3과’)와 ④ 석을수(허량·박도상의 ‘제4과’)를 합하면, 4개의 물줄기가 된다. 이 경우 이 물줄기들이 허량·박도상이 ‘제2과’(홍토수(안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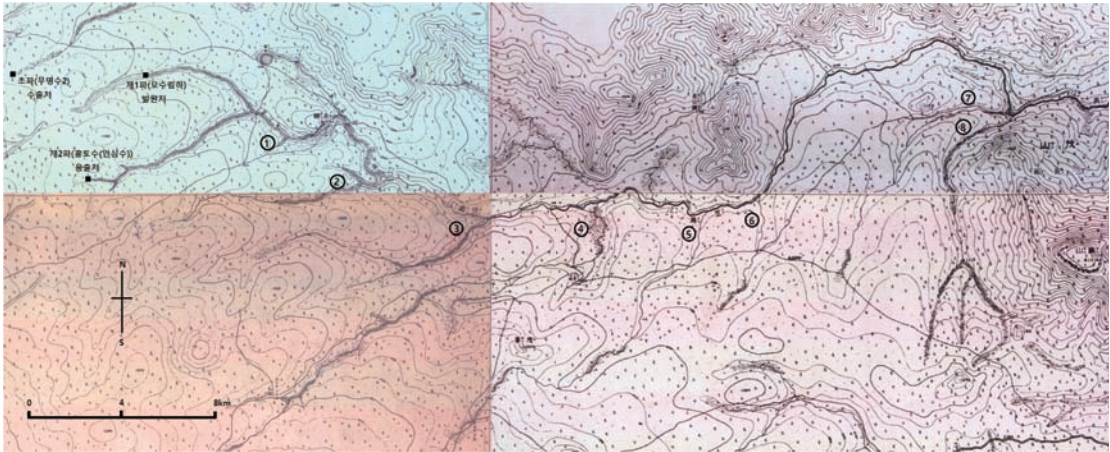


그림 13. 「일제 지형도」의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남증산 사이 물줄기



그림 14. 백두산 지역 「자연지도」(부분)에 표시된 두만강 상류 물줄기

주: 백두산총서편찬위원회(1994)

용출처~남증산 사이에서 두만강에 합류한다고 한 ‘4~5파’일 것이다.

둘째, ‘긴요치 않은 소류 2~3파’가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석울수(허량·박도상의 ‘제4파’) 이하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2~3파’는 석울수 이하에서 물줄기가 비교적 뚜렷한 ⑤, ⑦, ⑧ 일 것이다. 이 경우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남증산 사이에서 두만강에 합류한다고 한 ‘4~5파’는 ③ 산천수(용수천: 허량·박도상의 ‘제3파’)와 ④ 석울

수(허량·박도상의 ‘제4파’)로 추정, ⑤ 적개골수(무포수) 및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⑦과 ⑧ 등 5개 물줄기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추정 중 두 번째 추정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허량·박도상은 각각 거산찰방과 나난만호였으므로, 목극등의 답사 수행 후 북병영(경성)에서 각각 북청과 나난(삼수군(현 김정숙군))의 임지로 돌아갔다. 이들은 다시 북병영이 있는 경성으로 가서 홍치중과 함께 무산부를 거쳐 8월 초 백두산

에 갔으며, 공사 종결 후 다시 무산부를 거쳐 북병영으로 가 그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이때 이들은 5월 목극등의 답사 때와 같이 두만강 대안의 경로를 이용해서는 안 되었고, 또한 지형상의 이유⁶⁰⁾로 남중산(중산)의 남쪽을 경유해야만 했다. 이들이 돌아갈 때는 1712년 경계표지물 설치공사가 끝난 시점인 음력 9월 말(양력 10월 말)이었다. 백두산 지구의 중산 이북 두만강 최상류 지류들 중, 산천수(제3과)·석을수(제4과)·적개골수(무포수)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⑦과 ⑧의 물줄기들을 제외한 작은 물줄기들은 10월~4월 사이에 고갈되며, 언급한 물줄기들도 이 기간에는 눈에 덮여서 물줄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허량·박도상은 양력 10월 말에 제2과(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부터 남중산(중산) 남쪽을 거쳐 돌아갔으므로, 비교적 뚜렷한 이들 물줄기들만을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허량·박도상이 “용출처로부터 아래로 남중산까지 소류가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4~5과”라고 언급한 물줄기는 산천수(제3과: ③), 석을수(제4과: ④), 적개골수(무포수: 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⑦과 ⑧의 물줄기로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임진정계시 언급된 두만강 상류 수계를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에 대응하여 확정하였다.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종점, 곧 두만강 상류 목책의 종점은 제2과 용출처에 연결되었고, 제2과 용출처는 홍토수(안심수)의 용출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용출처의 좌표는 구글 어스를 통해 대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이중하와 이화자의 주장과 다르다. 그들은 두만강 상류 방향 경계표지물을 발견·재발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계표지물(목책)의 종점이 모수림하 발원지라고 주장하였다.

5) 경계표지물의 종점을 둘러싼 홍치중과 허량·박도상 사이의 견해 차이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은 경계표지물 설치와 관련하여, 그것이 백두산정계비로부터 흑석구 동남안을 따라 황화송전자에 이르고, 다시 그곳으로부터 두만

강 상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두만강 상류 수계 중 ‘제1과’, ‘제2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계표지물 종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1) 홍치중의 견해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따르면, 1712년 8월 초 홍치중은 ‘초과’(무명수2)와 ‘제1과’(모수림하)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상소와 진술을 분석해보면,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을 거쳐 설치해서 내려올 경계표지물을 ‘초과’(무명수2) 수출처에 연결시키고 공사를 종료하는 방식.

둘째,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을 거쳐 설치해서 내려올 경계표지물을 「초과(무명수2) 수출처-무명수2 동남안-제1과(모수림하) 발원지」로 연결하는 방식.

셋째,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을 거쳐 설치해서 내려올 경계표지물을 「제2과(홍토수(안심수)) 발원지」로 연결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한 홍치중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방식은 “초과 수출처까지 경계표지물을 설치한다면, 하류는 이미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 향해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다가 국경의 한계는 다시 의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뒷날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 둘째 방식은 ‘초과’(무명수2)와 ‘제1과’(모수림하)가 단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 셋째 방식은 목극 등이 지목한 물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조선의 영토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홍치중은 “이미 잘못 짚은 강원은 비록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류가 어떠한지는 논할 것 없이 단류처 이상은 진실로 마땅히 경계표지물 설치 범위 중에 있어야 하니, …이른바 수출처 못미처, 잠시 역사를 정지하고 돌아가기로

한다. 강원을 변경하는 것은 조정의 계획이 정해지기를 서서히 기다리라.”고 하였다.

홍치중의 입장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시 표현하면, “목극등의 뜻에 따르자면, 정계비로부터 단류처 이상, 곧 ‘초과’(무명수2) 수출처까지 경계표지물을 설치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물줄기가 ‘제1과’(모수림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그럴 수 없다. 정계비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설치하되, 그것도 목극등이 지목한 ‘초과’(무명수2) 수출처 못미쳐, 그 직전에 잠시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과 같다.

(2) 허량·박도상의 견해

홍치중은 1712년 8월 초 경계표지물 설치공사 초기에 백두산에 가서 전체적인 공사지침을 주고 곧 바로 경성 북병영으로 돌아갔다. 뒤이어 9월 말까지 경계표지물 설치공사가 진행되었다. 허량·박도상은 정계비로부터 경계표지물을 설치해 내려왔고, ‘강원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조정의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제2과’(홍토수(안심수)) 용출처에 경계표지물(목책)을 설치하였다.

허량·박도상의 진술에는 “(홍치중이) 비석을 세운 곳으로부터 공사를 시작하되, 용출처에 이르러서는 (용출처 부분은) 잠시 공사를 멈추라”고 말했다.”⁶¹⁾고 하였다. 여기서 ‘용출처’는, 앞서 언급했듯이, ‘초과’(무명수2) 수출처를 말한다. 그런데 허량·박도상은 당시 ‘제1과’(모수림하)보다 유량이 많았던 ‘제2과’(홍토수(안심수)) 용출처를 두만강의 원류로 확신했으며,⁶²⁾ 그곳에 경계표지물(목책)을 연결하였다. 특히 박도상은 당시 갑산출신 길잡이⁶³⁾ 등과 함께 5월 19일 두만강 용출처를 찾아 먼저 가서 목극등을 기다린 적이 있다.⁶⁴⁾ 따라서 백두산 일대의 지형에 밝은 갑산출신 길잡이 등 사냥꾼들의 견해에 따라 ‘제2과’(홍토수(안심수))를 두만강의 원류로 확신했을 것이다.

그런데 허량·박도상이 ‘제2과’(홍토수(안심수))를 두만강원으로 본 것은 갑산출신 길잡이가 그것을 두만강원으로 본 것과 맥락이 달랐을 것이다. 박도상은 지표유출이든 복류든 「정계비-흑석구-황화송전자-복류-제2과」로 이어지는 물줄기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맥락에서 ‘제2과’를 두만강원으로 본 것 같다. 반

면 갑산출신 길잡이는 「대연지봉과 무두봉 사이에서 발원-도망강(망류 및 지표유출과 복류의 반복)-신무성-신무성수-복류-안신무수-복류-홍토수(안심수)」로 이어지는 물줄기를 두만강원으로 본 것 같다. 갑산 ‘사냥꾼’ 김에순으로 추정되는 ‘갑산출신 길잡이’는 백두산 지형에 밝았을 것이므로, 오늘날 북한 지리학자들이 두만강원으로 보는 물줄기와 같은 맥락에서 ‘제2과’(홍토수(안심수)) 용출처를 두만강원 용출처로 보았을 것이다.

허량·박도상은 “영문(營門: 鏡城의 북병영)을 오가는 동안에 반드시 열흘 내지 한 달을 쓰게 되므로, 사세로 보아 기다리기 어렵고, 고립된 변경의 피로한 백성들이 4~5일 길에 여러 차례 역사에 동원되어 폐해가 적지 않으며,” 어차피 목극등이 지목한 물줄기가 오류이므로, 그보다 남쪽에 있는 ‘제2과’(홍토수(안심수)) 용출처에 경계표지물(목책)을 연결하는 것이 두 번 일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다.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따르면, “(1712년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정계비로부터 25리 구간은 목책을 하거나 돌을 쌓았고, 흑석구 하도의 지표유출이 있는 5리 및 건천 20여 리 구간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내의 흔적이 분명하므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또 그 아래로 두만강 상류 홍토수(안심수) 용출처까지 40여 리는 목책을 설치하되, 그 중간의 5~6리는 나무와 돌이 없었고 토질이 강해서 흙으로 돈대를 쌓았다.”

목극등의 자문에 “물이 없는 곳(無水之地)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1712년의 공사에서는 물이 있거나 내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2015년 필자가 확인한 경계표지물은 이러한 1712년의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에 이어 실행된 1713년의 보강공사가 더해진 결과이다. 1713년 공사에서는 물이 있는 곳이나 내의 흔적이 있는 곳 모두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였다(이강원, 2016).

5.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와 조·청의 태도

1) 목극등의 요구와 조선측에 의한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의 차이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필자가 복원한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분포는 그림 15 및 16과 같다. 이 그림들을 통해 경계표지물 설치가 목극등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극등은 「백두산정계비-흑석구 동남안-‘입지암류’ 시작지점(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약 1,840m 지점)-‘수출’(무명수2 수출처, 해발고도 1,340m)」의 경로를 따라 ‘물이 없는 곳(無水之地)’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무명수2’ 수출처에서 시작하는 물줄기가 동북류하다가 모수림하를 거쳐 홍토수(안심수)와 합류하여 두만강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1712~1713년 조선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물은 「백두산정계비-흑석구 동남안-황화송전자 부근-무명수2 수출처-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 이어졌다. 특히 흑석구 동남안 경계표지물이 목극등이 가리킨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지나 황화송전자까지 이어졌고, 그로부터 홍토수(안심수) 용출처까지 「목책-토퇴-목책」이 설치되었다는 점이 목극등의 요구와 큰 차이점이다. 물론 목극등의 요구가 없었던 무명수2 수출처로부터 홍토수(안심수) 용출처에 이르는 구간엔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것도 목극등의 요구와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목극등의 수계 인식이 오류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참작의 사유가 있다. 만약 목극등의 요구대로 경계표지물이 무명수2 수출처까지만 설치되었다면, 그 역시 또 다른 유형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무명수2는 「오도백하-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오호츠크 해남단 타타르 해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712년 홍치중, 허량·박도상은 오늘날 「대각봉 밀영(해발고도 1,980m)~황화송전자」 구간은 “5리에 걸쳐 물이 나왔고,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며, 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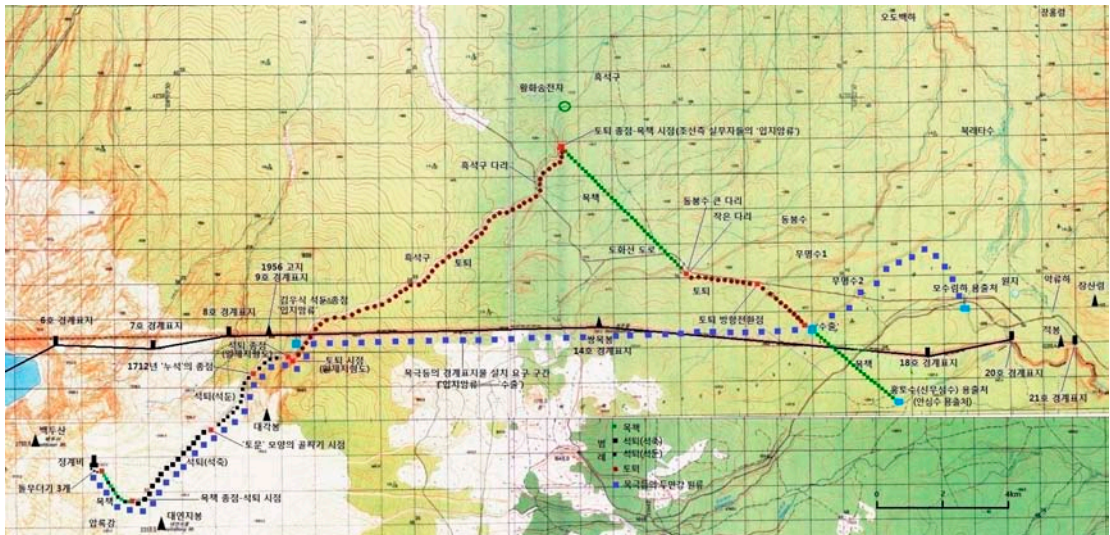


그림 15. 「북한 지형도」에 표시한 목극등의 수계 인식과 1712~1713년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

주: 홍토수(안심수) 용출처의 위치를 필자의 이전 논문들(이강원, 2016, 608; 2017, 99)보다 약간 서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이전 논문에서 「북한 지형도」에 좌표 값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홍토수(안심수)의 모수림하 합류점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대략 4km 정도, 대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 지점”이라는 점은 앞서의 논문들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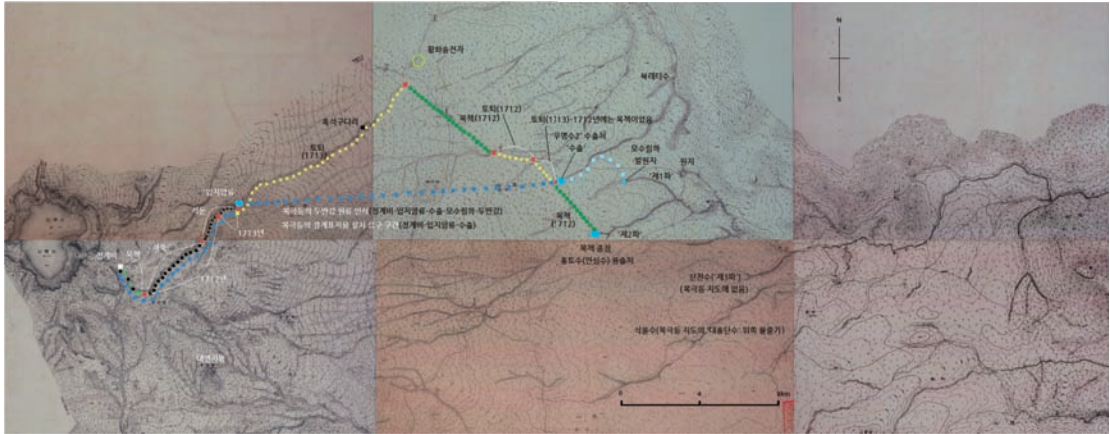


그림 16. 「일제 지형도」에 표시한 목극등의 수계 인식과 1712~1713년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 않았다.”⁶⁵⁾ 그리고 황화송전차 부근으로부터 두만강 상류 제2과(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 이어지는 「목척-도퇴-목척」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황화송전차 부근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도계와 나침반을 가지고 온 목극등이 황화송전차 부근 마지막 도퇴(1,390m)에서 북류(伏流)하기 시작하는 물이 40여 리 떨어진 무명수2 수출처(1,340m)에서 ‘수출(水出)’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목극등은 1712년 5월 12일 자신이 이의복과 함께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1,840m)에서 마지막으로 본 물이 동쪽으로 북류하여 무명수2 수출구(1,340m)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한편, 목극등의 경계표지물 설치 요구 구간과 조선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물 분포의 차이는 「강희 황여전람도」(그림 7)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 지도에 ‘Tumen Giyang Sekiyen’으로 표시된 물줄기는 「목극등 지도」에 표시한 경계표지물 분포(이강원, 2016, 607)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목극등 지도」와 제소남의 『수도제강』을 참조하자면, 그림 15와 16에 표시된 목극등의 두만강원 물줄기 인식과 조선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물 분포 중 전자가 후자에 비해 「강희 황여전람도」에 표시된 ‘Tumen Giyang Sekiyen’ 물줄기에 비교적 가깝다는 점도 목극등의 요구와 조

선측의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가 달랐다는 한 근거가 된다.

경계표지물 설치공사 논의와 결과만 놓고 본다면, 허량·박도상, 나아가 조선측은 「백두산정계비-흑석구 하도-황화송전차 부근-홍토수(안심수)」를 두만강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들의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는 목극등의 요구와 다른 것이었다.

2) 경계표지물 설치공사 결과에 대한 조선정부와 목극등의 태도

(1) 조선정부의 태도

조선 조정은 완료된 경계표지물 설치공사가 목극등의 요구와 달리 진행되었다는 것을 홍치중의 상소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홍치중이나 조선 조정이 목극등의 요구와 달리 진행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초과’ 수출처로부터 ‘제2과’ 용출처에 이르는 구간, 곧 무명수2 수출구로부터 홍토수(안심수) 용출처에 이르는 구간이었다. 그 이상의 구간은 목극등의 요구와 일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마지막 경계표지물(목척)을 홍토수(안심수) 용출처에 연결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1713년 1월 허량·박도상이 비변사로 불러와 진술하였다. 조선 조정은 허량·박도상의 진술내용에 대해 함경감사 이선부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하였다. 3월 15일 이선부가 백

두산 경계표지물 설치의 실상이 허량·박도상의 진술과 같다 보고하자, 조선 조정은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의 경계표지물 설치공사 결과를 인정하였다.⁶⁶⁾ 1713년 4월 10일 조선 조정은 1712년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에 고산·심곡을 막론하고 모두 돌을 쌓고 목책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지만,⁶⁷⁾ 이것은 경계표지물에 대한 일종의 ‘보강공사’였으며, 경계표지물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도 흉년으로 인해 9월 19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이강원, 2017, 100).⁶⁸⁾

당시 보강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표유출이 있는 흑석구 ‘수출처 5리’ 구간(대각봉 밀영(흑석구 하도 해발고도 1,980m)~‘입지암류’ 시작지점(흑석구 하도 1,840m)) 동남안에 석퇴 설치, ② 그 아래 건천 20여 리(‘입지암류’ 시작지점~황화송전자 부근(해발고도 1,390m)) 동남안에 토퇴 설치, ③ 1712년에 설치된 두만강 상류 방향 토퇴 5~6리에 이어지는 5리 정도의 토퇴(‘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의 후반부 약 2.1km 정도). ④ 이외에도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두만강 상류 방향 토퇴 시작지점에 이르는 목책 구간 중간에 먼 간격으로 토퇴들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1712년에 설치된 석퇴·토퇴에 비해 1713년에 설치된 그것들이 규모가 작거나 간격이 먼 것은, 경계표지물 설치 재료(돌과 흙)의 많고 적음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흉년으로 인해 인력동원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목극등의 태도

한편, 조선 조정은 목극등의 요구와 달리 경계표지물이 설치된 두만강 상류 구간에 대해 목극등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1712년 11월 5일, 논의 끝에 사신을 통해 목극등에게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시작했다고만 전언하기로 하였고,⁶⁹⁾ 실제 진행된 공사결과는 전달하지 않기로 하였다. 1713년 3월 15일, 연경에서 보내 온 사신의 보고에 “목극등이 다시 조사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⁷⁰⁾고 한 것에 따르면, 목극등은 자신의 정계가 옳으며, 조선측이 자신의 의도대로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1713년 5월 칙사로 한양에 온 목극등은 경계표지물 공사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 조정 역시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에 대해 침묵하며 조용히 넘어갔다. 1713년 8~9월 경계표지물 보강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목극등과 소통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이강원, 2017, 100).

6. 결론: 임진정계 연구결과의 총결

필자는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입지암류’ 시작 지점, ‘수출’ 등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였고,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분포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진정계 당시 두만강 상류 수계와 경계표지물의 종점을 비정하였다. 그간의 연구와 이 논문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통해 임진정계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각종 위치의 확정

① 백두산정계비의 위치는 백두산 정상 동남쪽 「북한 지형도」의 해발고도 2,383m, 「일제 지형도」의 해발고도 2,320m, 대략 북위 41°59′24.34″, 동경 128°05′57.48″ 지점이다. 정계비에 이어져 설치된 경계표지물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기 때문에, 정계비는 설치 이후 이동되지 않았다.

② 임진정계 외교문서 자문의 ‘석봉암류(石縫暗流)’와 정문의 ‘암복잠류(暗伏潛流)’, 「목극등 지도」의 ‘입지암류(入地暗流)’는 같은 의미이며, 그 시작지점은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해발고도 약 1,840m 지점, 대략 북위 42°01′09.13″, 동경 128°10′26.00″ 지점이다.

③ 1713년 흑석구 동남안에 설치된 토퇴의 종점은 대략 북위 42°04′20.09″, 동경 128°16′08.42″이다. 정계비로부터 흑석구 하도를 따라 대략 23km 떨어진 지점이며, 이곳으로부터 하류(동북쪽)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습지성 초지 황화송전자가 있다.

④ 흑석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두만강 상류 방향으

로 향하는 경계표지물(「목책-토퇴-목책」) 중 토퇴는 ‘동봉수 다리’ 부근으로부터 동봉수 동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 사이에 분포하며, 그 분포 길이는 약 4.2km이다.

⑤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수출’의 위치는 동봉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의 수출처(水出處: seepage zone)를 말하며, 해발고도 약 1,340m, 대략 북위 42°01′30.36″, 동경 128°21′33.62″ 지점이다.

⑥ 허량·박도상의 진술과 홍치중의 상소에 언급된 ‘초파’는 동봉수 동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를 말하며, ‘제1파’는 모수림하, ‘제2파’는 홍토수(안심수)이다. 허량·박도상의 ‘제3파’는 산천수(용수천: 대랑하)를 가리킨다. 이 ‘제3파’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목극등 지도」에 그려진 두만강 상류의 북쪽으로부터 3번째 물줄기(곧 ‘대홍단수’ 북쪽의 물줄기)가 허량·박도상의 ‘제4파’이며, 석을수이다. 홍치중의 ‘제3파’는 석을수이며, ‘제4파’는 대홍단수이다. 홍치중은 산천수(용수천: 허량·박도상의 ‘제3파’)가 「목극등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것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⑦ “단류처와 용출처 사이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소류 5~6 갈래”는 황화송전자로부터 무명수2 수출처에 이르는 구간에서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몇 개의 물줄기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도화선 도로의 ‘무명수2 다리’로부터 동쪽에 있는 5~6개의 암거를 지나는 물줄기로 보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용출처에서 남중산까지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소류 4~5갈래”는 홍토수(안심수)로부터 증산에 이르는 사이에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물줄기 중 산천수(용수천), 석을수, 적개골수(무포수) 그리고 증산 북북서에서 두만강에 유입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개의 물줄기로 추정된다.

⑧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중점은 ‘제2파 용출처’이며, 따라서 홍토수(안심수)의 용출처이다. 위치는 모수림하와 이 하천의 합류점으로부터 상류방향 약 4km 지점으로, 좌표는 대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이다.

(2) 임진정계 결과와 한·중 국경 논의

임진정계는 조·청 양국 모두 국경이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하였다. 그중에서도 백두산 지역의 압록강과 두만강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목극등은 「정계비-‘입지암류’ 시작지점(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약 1,840m 지점)-‘수출’(무명수2 수출처, 해발고도 1,340m)-무명수2-모수림하-두만강-바다」로 이어지는 하천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두만강 원류로 보았으며, 조선과 청의 국경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백두산정계비-‘입지암류’ 시작지점-‘수출’」구간 중 ‘물이 없는 곳’에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구했다. 그는 ‘수출’(무명수2 수출처)로부터 동북류하는 물줄기가 모수림하가 되어 홍토수(안심수)와 합류한 후 바다까지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출’ 이하에는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만강 상류에 목극등이 인식한 것과 같은 하천은 없으며, 따라서 그가 요구한 경계표지물의 경로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반면, 1712~1713년 조선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물은 「정계비-흑석구 동남안-황화송전자 부근-무명수2 수출처-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 이어졌다. 경계표지물이 대각봉 북북동의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훨씬 벗어나 황화송전자까지 설치되었고, 그로부터 홍토수(안심수) 용출처까지 「목책-토퇴-목책」이 설치되었다는 점은 목극등의 요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초 목극등이 요구하지 않았던 「무명수2 수출처-홍토수(안심수) 용출처」구간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것도 그의 요구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조선측은 자신들이 설치한 경계표지물을 따라 두만강이 이어진다고 보았다. 조선측의 경계표지물 설치는 목극등의 수계 인식 오류에 또 다른 오류를 덧칠한 것이었다. 조선측 임진정계 참여자들 중 길잡이 사냥꾼들을 제외한 홍치중, 허량·박도상 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에 대한 인식 역시 오류였다.

나아가 경계표지물 설치 과정에서나 그 결과를 놓고도 조선측과 청측 사이에 의사소통이나 상호검증이 없었다. 임진정계의 실상이 이러하므로, 임진정계를 근거로 중국과의 국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합리

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중국과의 국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면, 백두산 지역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계는 송화강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점, 압록강과 두만강이 모두 천지와 지질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임진정계 이전에 양국이 모두 송화강·압록강·두만강이 천지에서 발원 내지 유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양국이 공히 백두산 천지에 대해 신성성과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1962~1964년의 북·중 국경조약은 임진정계, 을유감계, 정해감계 그리고 간도협약에서의 국경논의 내지 국경획정보다 상당한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을유감계에서 북·중 국경조약에 이르는 국경논의 내지 국경획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주

- 1) ‘紅丹水’는 「목극등 지도」에는 ‘大紅丹水’로, 「일제 지형도」에는 ‘小紅湍水’로 표시되어 있다. 홍단수·대홍단수·소홍단수는 실제로 하나의 물줄기이다. 김지남의 『북정록』 5월 12일자에 따르면, “이른바 홍단수는 사태봉 밑에서 발원하며, 굽어 돌고 돌아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오늘의 행로에서 같은 물줄기를 세 번 건넜다. 물 흐름이 하루로 갈수록 점점 커지므로 소·중·대의 명칭이 있다(所謂紅丹水, 源出沙汰峯底, 繞回旋曲流, 入於豆滿江者, 今日之行, 三過一水, 而水勢漸大於下流, 故有小中大之稱).”
- 2) 朴權, 「北征日記」 5월 19일: 夕, 見李宣傳官書, 有曰, 立碑處東流之水, 末皎西流, 摠管以爲此非豆滿江源流, 更向加察峯下湧出之水, 與半使監司相議處之云.
- 3) 이 사본이 바로 「목극등 지도」이다.
- 4) 『속중실록』 38년(1712) 6월 3일: 接伴使朴權, 咸鏡監司李善溥馳啓曰, 摠管自白山下來, …摠管以爲, 兩國知路人言, 東流之水, 斷流後百餘里, 始爲湧出云, 今吾所得水源, 與此言相符. …差員, 軍官, 譯官輩, 所言亦如摠管之言. 摠管又指示山圖曰, 水源斷流處, 若是其模糊不明, 苟無立標, 則彼此有難考據, 以木柵定限何如, 臣等答曰, 木柵則其處樹木, 或有或無, 毋寧隨其便否, 或築土或聚

石或設柵, 而不敢擅便. 當稟于朝廷, 隨便始役, 而大國人來檢則好矣. 摠管曰, 大國人不必來看, 舉行與否, 每年節使便, 通于俺處, 以爲轉奏之地, 而設標後, 每年巡審, 在所不已. 且言, 山圖一本, 歸奏皇上, 一本當送國王前云.

- 5) 『同文彙考』原編 48권(疆界), 康熙 51年 5月 28日: 勅使問議立柵便否咨: 奉旨查邊大人穆等, 移咨朝鮮接伴使·觀察使. 爲查邊事, 我親至白山, 審視鴨綠土門兩江, 俱從白山根底發源, 東西兩邊分流, 原定江北爲大國之境, 江南爲朝鮮之境, 歷年已久, 不議外, 在兩江發源分水嶺之中立碑, 從土門江之源, 順流而下, 審視, 流至數十里, 不見水痕, 從石縫暗流, 至百里, 方現巨水, 流於茂山, 兩岸草稀地平, 人不知邊界, 所以往返越境結舍, 路徑交雜, 故此於接伴觀察同商議, 於茂山惠山相近, 此無水之地, 如何設立堅守, 使衆人知有邊界, 不敢越境生事, 庶可以副皇帝軫念生民之至意, 且你我兩邊無事, 爲此, 相議咨送, 康熙五十一年五月二十八日. 김지남의 『북정록』, 5월 28일자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6) 『同文彙考』原編 48권(疆界), 康熙 51年 5月 28日: 設柵便宜呈文: 朝鮮國接伴使議政府右參贊朴權, 咸慶道觀察使李善溥等, 謹呈. …而又慮土門江源暗伏潛流有欠明白, 既以圖本親自指示. …日者, 閣下以設柵便宜, 俯賜詢問, 職等, 以木柵非長久之計, 或築土或聚石或樹柵, 趁農歇始役之意, …仰稟. 康熙五十一年六月初二日. 朝鮮國接伴使議政府右參贊朴權, 咸慶道觀察使李善溥. 김지남의 『북정록』, 6월 2일자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7) 『속중실록』 38년(1712) 7월 20일: 領議政徐宗泰…宗泰曰, 白山定界, 永杜犯越之患, 兩國俱甚便利, 此事宜有陳謝之舉, 上從之. …又因宗泰所白, 北路定界處, 土築·木柵設標事, 命本道農隙, 使守令·邊將, 隨便爲之.
- 8)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0월 10일(472책, 달초본 25책): 領議政李濡所啓, 咸鏡監司李善溥啓本中, 以白山立本處, 既已設柵, 立標, 前頭節使時, 傳言于穆差爲言, 蓋穆差入去時, 立碑以下設標, 後使往來時, 傳通於渠云矣. 今番使行時, 使譯輩, 以此傳言, 何如. 上曰, 彼既有此言, 則今番使行時, 使之傳言, 可也.
- 9) 이 논문의 뒤에 인용한 홍지중의 상소 참조.
- 10)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5일(473책, 달초본 25책): 引見時, 領議政李濡所啓, 白頭山定界立標處設築一款, 因咸鏡監司狀啓, 以其完役之意, 今番使行時, 傳言于穆克登事, 前已稟定矣. 聞朴權之言, 則以三百名之軍, 未久完築云者, 似涉太速, 其間或不無不能着實之事, 今若以已爲完役傳言, 而日後彼人, 或有更爲看審之舉, 不無不實之慮, 姑以始役爲言, 不必言其完役之意云, 其言誠然, 依此更爲分付於使行, 何如, 上曰, 以三百名之

- 軍, 卽速完役云者, 予亦有所未審矣, 今姑以始役傳言之說, 實爲得當, 依所達分付, 築役不無不能着實之慮, 問于本道, 可也.
- 11)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20일(474책, 탈초본 25책): 咸鏡監司狀啓, 以白頭山定界立標事, 有前後不察之失, 惶恐待罪事, 傳于李德英曰, 勿待罪事, 回諭.
 - 12) 『숙종실록』 38년(1712) 6월 9일.
 - 13)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월 26일: …洪致中爲北評事….
 - 14)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4월 16일: …下直, 北評事洪致中, 加德僉使鄭善綱….
 - 15)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27일: …兼文學洪致中, 牌不進, 罷職傳旨, 傳曰, 只推勿罷….
 - 16)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27일: 都政, 兵批…洪致中爲副司直.
 - 17)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2월 6일: 검문학 홍지중(洪致中)이 상소하였다. 그 대강은 체직시켜주셔서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치 시의 곡절을 아뢰니 임금께서 살펴주십사 하는 것이다. 임금께 올리니, 답하시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고, 너는 사직하지 말고 갔다 오너라.” 하셨다(兼文學洪致中上疏, 大概, 冀蒙恩遞, 俾伸至情, 兼陳白山設標時委折, 以備睿察事, 入啓, 答曰, 省疏具悉, 疏辭令廟堂稟處, 爾其勿辭往來焉).
 - 18)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時, 咸鏡監司李善溥, 以白頭山設標, 幾盡完役之意, 啓聞. 兼文學洪致中, 曾以北評事, 往審於設標之初, 上疏陳其委折曰, 臣在北關時, 審白頭山設標處矣, 夫水出白山之東眞長山之內, 合而爲豆滿江者, 凡四派, 其最南第四派, 卽北兵使張漢相最先往審, 而阻冰雪不得前進處也. 其北第三派, 卽北虞候金嗣鼎等追後所看審者也. 其北第二派, 卽羅暖萬戶朴道常以清差時道路差員, 隨往尋得者也. 其最北第一派, 則水源稍短, 而與第二派相去最近, 故下流入於第二派, 而爲豆江之最初源流者也. 至於清差所指以爲, 江源入地伏流, 還爲湧出之水, 則在第一派之北十數里外, 沙峰之下, 當初清差自白山而下, 遍尋水源之際, 行到此地, 駐馬而言曰, 此卽土門之源也, 不復窮其下流. 由陸而行, 及到第二派, 見第一派之來合曰, 其水果合於此, 其爲土門之源, 明的無疑, 以此定爲境界云. 此其衆水源派定界曲折之大略也.
 - 19)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臣率諸差使員, 到清差所謂江源還入之處, 監役差員皆以爲, 此水雖摠管所定江源, 而伊時事急, 不及遍尋其下流, 今當立標, 不可不一見云. 臣使許朴(居山察訪許樑, 羅暖萬戶朴道常)兩差

- 員, 同往審見, 還告曰, 順流而行幾至三十里, 此水下流, 又與北來他水合, 漸向東北而去, 不屬於豆滿江, 必欲窮尋, 則勢將深入胡地, 如或逢着彼人, 事涉不便, 未免徑還云.
- 20)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蓋清差只見水出處及第一派二派合流處而已, 未嘗逐水而下, 窮探去處, 故不知渠所見之水, 則流向別處去, 中間別有所謂第一派, 來合於二派, 而誤認以渠所見者, 流入於豆江, 此固出於輕率之致.
 - 21)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既知江源果誤, 而諉以清差所定, 直爲設標於此水, 則下流既入彼地, 不知去向, 而疆界之限, 更無依據, 不無日後難處之憂, 故臣與諸差員, 相議以爲, 既誤之江源, 雖不可擅自變通, 而勿論下流之如何, 斷流處以上, 則固當在設標之中, 先自立碑處始役, 自上而下, 無木而有石, 則築石作墩, 有木而無石, 則斫木設柵, 而今日朝令, 初非一舉卒役之意, 毋求速完, 惟務堅牢, 未及所謂水出處, 姑爲停役而歸, 則江源變通, 徐待朝家定議, 以爲明年繼役時進退之地未晚云, 則差員輩皆以爲可矣.
 - 22)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臣追聞樑等, 急於彌縫, 不待朝令, 直以木柵屬之第二派水源, 夫木柵所止之處, 卽地界之所由分也. 兩國定界, 何等重大, 而乃以一二差員之意, 擅定疆域於朝廷所不知之水, 此則宜加懲治, 以重疆事, 而江源一款 亦令廟堂, 從長善處.
 - 23)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4일: 司啓辭, 歲前次對時, 以豆滿江源更審事仰稟, 則以文官堂上姑勿差遣, 先使本道監·兵使, 從便送人, 詳審其水源歸處, 明白啓聞, 且待差員拿來查問後, 商議處之, 可也, 爲教矣. 今當以此發關本道, 而第念, 當初水派之審定, 及今番設標時, 覺其差誤之狀, 固當查問於差員而後, 分付本道, 更審其虛實, 則不待查問於差員, 經(徑)先分付本道, 使之更審, 似違先後之序, 且此亦非目前緊急之事, 姑徐發關, 以待差員拿來, 觀其供辭, 而稟旨分付, 何如, 答曰, 允.
 - 24)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1월 5일(475책, 탈초본 25책): (비변사낭청이) 또 아뢰기를, 「작년 말 정무 보고할 때, 두만강원을 다시 조사하는 일에 대해 여쭙으니, “문관당상은 당분간 과견하지 말고, 먼저 본도(함경도)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사람을 보내서 그 수원의 바른 곳을 자세히 살피게 하여 분명하게 보고토록 할 것이며, 또 차원을 잡아다가 조사한 뒤에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교하셨습니다(숙종실록 12월 7일의 기록을 말함). 지금 이와 같이 본도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당초 수파(水派)를 살펴서 정한 것과 이번엔 경계표지물 설치할 때 그 착오를 깨달은 상황을 순서대로 생각하니, 마땅히 차원을 조사하여야 하며, 곧바로 먼저 본도에 분부하

시어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앞뒤 순서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목전의 긴급한 일도 아니니, 우선 공문 발송은 서서히 하고, 차원이 잡혀오기를 기다려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고서 품지하고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유히한다.” 말씀하셨다.(又啓曰, 辭歲前次對時, 以豆滿江源更審事仰稟, 則以文官堂上姑勿差遣, 先使本道監·兵使, 從便送人, 詳審其水源端處, 明白啓聞, 且待差員拿來查問後, 商議處之, 可也, 爲教矣. 今當以此發關本道, 而第念, 當初水派之審定, 及今番設標時, 覺其差誤之狀, 固當查問於差員, 徑先分付本道, 使之更審, 似違前後之序, 且此亦非目前緊急之事. 姑徐發關, 以待差員拿來, 觀其供辭而稟旨分付, 何如, 傳曰, 允.)

25) 『비변사등록』 1713년 1월 20일: 司啓辭, 白山設標處, 水派錯誤虛實, 待差員拿來查問, 觀其拱辭而處之之意, 曾已定奪矣. 其時差員, 前居山察訪許樑, 羅暖萬戶朴道常等, 未及拿來, 因赦蒙宥, 自備局, 招問後稟處, 何如, 答曰, 允.

26)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司啓辭, 前居山察訪許樑·前羅暖萬戶朴道常等處, 謹依前所稟定, 自本司招問, 則其所對如此, 故別單書入, 且樑有所畫來地圖, 而以其窄小, 不便省察, 使善畫者, 按其圖本, 與樑同議改畫, 竝與別單入啓, 以備乙覽矣.

27)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觀其所對, 則其擅自設標第二派之事, 費辭分疏, 穆差所定伏流復出之水, 明其不入豆江, 而北流, 引孫佑齊·韓致益·月伊·順全等而爲證, 前夏穆差審定水源時, 初不詳察其所謂初派之不來合第一派事, 則謂之以所幹各異, 初不尋見初派下流云, 而其所自明之辭, 有難遽信, 令本道, 查問於佑齊·致益·月伊·順全及前夏同行入趙台相等, 而狀聞其所供後參互彼此同異虛實, 而徐而更審其水派去處之當否, 稟定, 何如, 答曰, 允.

28)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前居山察訪許樑·前羅暖萬戶朴道常處問啓: 白等, 矣徒等, 以豆滿江源流設標定界, 差使員進去, 則所當一依前夏穆克登所指畫地形設標是遺, 穆差所定水源, 雖有所差誤, 此非差員所可變通, 故評事既令先自立碑處始役, 自上以下, 未及水出處, 姑爲停役, 徐待朝家議定, 則爲差員者, 亦當依評事所言舉行是去乙, 矣徒等, 何以任意彌縫, 捨置第一派水源, 擅自設標於第二派水源是噓.

29)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定界設標, 何等重大, 而矣徒等之不以此言于道臣以爲啓聞處置之, 而如是擅行者, 事極可駭訝不噓, 前夏穆差, 自白頭山沿流定界之時, 矣徒等, 與之終始同行, 則穆差之以伏流復出之水, 指定爲入於第一派, 不復致疑於其水之別向東北去, 全不審察者, 雖其疎謬所致, 矣徒等, 初不詳審, 任其

謬定, 不請窮尋是如可, 今於設標之際, 始覺其誤, 朦朧之責, 亦所難免是在如中, 上項伏流復出之水, 初何以定其爲入於第一派, 而今何以知其別向東北去是旡, 此水雖向東北去, 亦或迤回眞長山來, 合於豆滿江者是噓.

30)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此水去處, 明白辨別而後, 方可斷定彼我境界, 矣徒等, 前既與穆差同行, 今又順流往審者, 至於三十里, 則同山川形勢, 可以詳知是沙除良, 當初不爲窮尋, 以致誤定緣由, 到今亦不可隱諱是置, 矣徒等, 雖值赦今(令), 得免拿問, 此事關係不輕, 查問矣徒等處後, 朝家有處置之道.

31)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故自本司招問事, 傳教教是置, 問目內辭緣一一詳陳, 亦推問教是臥乎在亦.

32)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矣身, 於上年四月清差之行, 以人馬糧資及彼人卜馱差員, 自厚州至白頭山, 領率隨往是白如乎.

33)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大概白頭山圖形言之, 則穆差所指小流爲第一派, 道路差使員朴道常及甲山人等, 所指水源湧出, 即今設標處爲第二派, 宋太先所指湧出處爲第三派, 一派二派則入於穆差圖本中, 三派則添入於監營進御圖本中, 不緊小流二三派, 則不入圖本中是白在果.

34)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當初穆差, 自白山下來時, 朴道常及甲山指路人等, 先送于豆江湧出處, 使之等待是白遣, 穆差亦爲追往爲白如可, 未及湧出處十餘里, 見一小流, 駐馬指示曰, 見此山勢, 則此水應爲流入於豆江是如, 泛然言及, 而直到第二派源頭之下四五里地, 穆差乃曰, 此水元派分明, 吾不必往見其發源處是如乙仍于, 軍官趙台相一人忿, 往見發源處是白乎旡, 穆差一行, 沿流而下, 未過四五里, 又見小流之自北來者曰, 前所見初流之水, 來入於此是如爲白遣, 又轉二十里下止宿之時, 穆差招致我國諸人, 出示山圖曰, 以初派之水設柵, 則此於爾國所謂湧出處加遠十餘里, 爾國之多得地方爲幸是如, 云云乙仍于, 從行諸人, 舉以爲喜, 信之無疑, 中間八九里, 不復看審是白遣, 仍爲沿流而下過盧隱東山, 來會於魚潤江使臣待候處, 而定界一款, 矣身, 則元非已任, 未有面陳其曲折於使臣之事是白如乎.

35)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八月初, 巡察使因備局關, 又差白山設標差員是白去乙, 馳往鏡城府, 與北評事, 率役軍往赴役所是白如乎, 矣身, 以爲向者, 穆差審定水源之時, 矣身, 以夫馬差員, 雖爲隨往, 所幹各異忿不噓, 領率人馬糧資及彼人卜馱, 在後看檢酬應不暇乙仍于, 初不尋見穆差所指初派之下流是白在如中, 令當設柵之日, 不可不詳審始役是白乎等以. 稟告評事, 與其帶行將校孫佑齊及羅暖萬戶朴道常茂山人韓致益等,

同往尋到三十餘里，則水勢漸大，向北而去，不入於豆滿江是白乎跡，同往來三十里之間，有彼人行跡，故孫佑齊慮其或與彼人相遇，不欲進去，每每落後為白乎跡，韓致益段置，亦以為渠，以邊上生長之人，詳知彼此地形，此水明是北流，不入於豆滿江，如或入於豆滿江，則日後渠當被虛罔之罪是如為白乎跡，穆差所謂小流來合處，又為看審，則乃是山谷間數里許橫出者是白去乙，以此辭緣回告評事，則評事以為此水既誤，則自立碑處始役，而至於湧出處，姑為停役，以待稟定後處之宜當是如為白乎跡，評事先歸之際，韓致益及甲山人姓不記月伊稱名人，看審水勢，而回報於評事是白遣，其後矣身，亦與兩人，更為看審水勢。

36)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而月伊及馬頭順全等歸行，則南甌山越邊，無來合豆江之水是白乎跡，當初彼我人，沿流而下，自即今設標處，下至大紅丹水二日半程，則自穆差所指初派處，與即今設標處之間，微有起岸，仍作眞長山，逶迤而下至茂山是白乎矣，其間自彼地元無他水之來合者是白乎跡。

37)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自穆差所指初派，至即今設標處，相距大約十里許是白乎跡，評事所謂第一派，即穆差所指小流來合處，而與即今設標處相距不過數里是白如乎，穆差所指之水，既為錯誤，朴道常及甲山人等所指第二派，源流分明，少無可疑之端，則此處立標之外，更無他道是白乎跡，評事所謂第一派，元是自山谷間數里許，橫出細流，則決不可以此指為湧出處，而必若移就木柵於此水，則棄源流分明之上流，而迤下八九里之許，始為設標，亦涉不當是白乎跡。

38)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且自斷流處，至湧出處之間，小流向北者五六派，而自湧出處，下至南甌山，小流入于豆滿江者四五派是白如乎，樹木參天，咫尺不辯(辨)之處，小流如是混雜是白乎所，矣身，無識淺慮，若使日後差使員誤知，而設柵於北流之水，則恐不無前頭之虞是白乎跡，營門往復之際，必費旬月，勢難等待是白乎跡，絕塞疲氓，四五日程屢次動役，其弊不些，一從形便，姑先設標，馳進營門，詳陳實狀，似無所防是白乎乙可。

39)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與諸差使員等相議後，自立碑下二十五里段，或木柵，或累石是白遣，其下水出處五里及乾川二十餘里段，山高谷深，川痕分明之故，不為設標是白乎跡，又於其下至湧出處四十餘里良中，皆為設柵是白乎矣，其間五六里則既無木石 土品且強乙仍于，只設土墩為白有如乎，前後實狀，不過如斯是白乎等以，具由仰達為白齊。

40)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前羅暖萬戶朴道常問啓，矣身，上年四月清差之行，以道路差使員，先

行引路，進往白頭山是白遣，上年八月分，又差設標處監役差使員，與許樑同為看役乙仍于，問啓辭緣，與許樑所供，少無異同是白乎等以，不為煩達是白齊。

41)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備局以此啓奏，且進其所進圖本，仍覆奏曰，自明之辭，有難遽信，令本道，查問於佑齊等各人及趙台相處，而狀聞以其所供參互彼此同異，而徐稟其更審當否，上允之。 이 내용은 비변사의 1713년 1월 28일 보고가 『숙종실록』 편찬과정에서 1712년 12월 7일자에 삽입된 것이다.

42) 「북한 지형도」 상의 방향과 이론상 도자각 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 차이가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43) 金魯奎, 『大韓北輿要選』, 白頭圖本攷, 李義復記事: 백두산 앞에 종이나 가마솥을 얹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작은 산이 있는데, 우리말로 '가차봉'이라 한다(白山前有金星一小山諺傳可次峰也).

44) 「강희 황여전람도」에 약류하 상류가 원지 북쪽으로 뻗어 있는 것은 유건봉의 지도(그림 9)와 「일제 지형도」에서도 확인된다.

45) 따라서 도자각 편차가 0°이다.

46) 자북의 위치는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1712년 당시의 자편각을 적용해야겠지만, 현재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1977년 러시아에 의해 측정된 「북한 지형도」의 자편각을 이용하였다. 「북한 지형도」에 의하면, 백두산 정상부에서 원지(圓池)에 이르는 구간의 자편각은 8°52'~8°54' 정도이다. 한편, 오늘날 북경의 자편각은 5°50' 정도로 측정된다.

47) 「강희 황여전람도」는 북경을 지나는 경선상에서만 진북과 도북이 일치한다. 이 경선의 서쪽에서는 도북이 진북의 왼쪽(서쪽)에 있고, 동쪽에서는 도북이 진북의 오른쪽(동쪽)에 있다.

48) 「강희 황여전람도」에는 제3과(산천수(용수천, 대랑하))가 그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목극등 지도」에 제3과가 그려지지 않았다는 허량·박도상의 진술과 합치한다. 한편, 제소남(齊召南)의 『수도제강(水道提綱)』에 “토문강원은 장백산 정상 동쪽 기슭에서 나오는데, ‘투먼씨진(土門色禽)’이라 하며, 숨은 듯 보일 듯 수십 리를 동류하고, 꺾어서 또 수십 리를 동북류며, 한 물이 서북으로부터, 두 개의 근원이 합쳐진 한 물이 남으로부터 와서 함께 합치는데, 장백산 줄기를 끼고 있다. 백여 리를 동남류하여, 두 개의 근원이 합쳐진 한 물이 서남으로부터 와서 합친다. (토문강원에서 여기까지의) 물줄기 남쪽이 곧 조선국이다. …(土門江源, 出長白山頂之東麓, 曰土門色禽, 東流若隱若見數十里, 折東北流又數十里, 有一水自西北, 一水合二源自西南, 來竝會, 俱長白之峰也. 東南流百餘里, 有一水合二源, 自西南來, 水南即朝鮮國…)”라고 하였다. 이는 「황여전람도」를 보면서 물줄기를 기술한 것인데, 처음의 “서

- 북으로부터 온 물”은 약류하이이고, 첫 번째 “두 개의 근원이 합쳐진 한 물이 남으로부터 와서 함께 합친다.”고 한 것은 흥토수(안심수)이다. 「일제 지형도」에 오늘날 흥토수(안심수)로 불리는 하천은 두 개의 근원을 갖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두 번째 “두 개의 근원이 합쳐진 한 물이 서남으로부터 와서 합친다.”고 한 것은 석을수이다. 「일제 지형도」에 석을수 역시 두 개의 근원을 갖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한편, 「강희 황여전람도」의 조선도 수록 경위에 대해서는 장상훈(2006)과 김기혁(2015)을 참조할 수 있다.
- 49) 「북한 지형도」의 안신무수와 안심수는 북류로 연결되는 하나의 하천이라는 점은 북한 지리학자들의 조사에서 밝혀져 있다.
- 50) 두만강의 연중 정상유출은 약류하 합류점 이하에서 이루어진다.
- 51) 『속중실록』, 38년 5월 15일: 허량·박도상의 진술 중 “...則此水應爲流入於豆江, 泛然言及, 而直到第二派源頭之下四五里地,…”
- 52) 『속중실록』 38년(1712) 3월 6일.
- 53) 『속중실록』 38년(1712) 4월 7일.
- 54) 『속중실록』 38년(1712) 5월 15일: 善溥又馳啓曰, 更令惠山僉使, 詳審豆滿江源, 則江源出自白頭山顛中間, 斷流幾八九十里, 至甘土峰下一息許, 始自土穴中湧出凡三派, 而爲豆滿江云.
- 55) 박권의 「북정일기」 5월 8일: …北虞候金嗣鼎, 豆江源看審時, 殫(憚)於徒步, 使軍官代行, 又稱病不卽來現, 故監司拿入虞候, 決棍二十度….
- 56) 박권, 「북정일기」 5월 13일: …留宿魚澗江…主人元益成入謁, 話間偶及豆江源流, 則以爲北兵使啓聞地圖中, 所謂豆江卽大紅丹水, 非豆江也, 有一大水, 源出白山, 合流於南甌山北邊稍下者, 乃眞豆江, 而詳知此水者, 土人蔡震龜·韓致益云. 故是也, 裁書報于監司… 김지남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채진귀, 한량(閑良) 한치익”이라 기록하였다.
- 57) 허량·박도상은 ‘제1파’(모수림하)에 대해서는 “세류이니, 결코 이를 용출처라고 지목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 58) 그 중 1개는 공사중이어서 암거인지 분명치 않았다.
- 59) 남중산에 대응하는 ‘북중산’은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 청산(靑山)의 증봉산(甌峰山)을 말한다. 모두 떡시루를 엮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 60) 필자의 답사 결과 중산 북쪽의 두만강 남안은 경사가 매우 급하고 절벽구간이 있어서 도보로 지나기 어렵다. 때문에 목극등은 1712년 5월 20일 두만강의 이 구간을 지날 때 대안(對岸)의 경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61) 이 문장에서 “至於湧出處, 姑爲停役”은 “용출처까지 연결하고 잠시 공사를 멈춘다.”가 아니라, “용출처에 다 와서

- 는(또는 용출처 부분은) 잠시 공사를 멈춘다.”는 의미이다.
- 62) 그들은 홍치중이 ‘제1파’(모수림하)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63) 해산진에서부터 목극등 일행과 합류한 것이 확인되는 갑산 사냥꾼 김애순(金愛順)으로 추정된다. 한편, 박종의 「백두산유록」 5월 20일 기록에 따르면, 임진정계 당시 길잡이로는 무산 사냥꾼 한치익(韓致益), 갑산 사냥꾼 송태선(宋太善)도 있었다. 그러나 허량·박도상이 “송태선이 용출처라고 가리킨 것은 제3파”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갑산 출신 길 안내인(甲山指路人)’이 송태선일 가능성은 없다. 만약 ‘갑산 출신 길 안내인(甲山指路人)’이 송태선이었다면, 이 부분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을 것이다.
- 64) 그러나 목극등은 이들이 기다리는 용출처에 이르지 않고, 용출처 하류 4~5리 지점에서 물줄기를 따라 모수림하와의 합류점에 이르고, 이후 두만강을 따라 내려갔다.
- 65) 허량·박도상의 진술 중 “水出處五里及乾川二十餘里段, 山高谷深, 川痕分明之故, 不爲設標.” 이 구간에는 1713년 보강공사를 통해 석퇴(석둔)와 토퇴가 설치되었다.
- 66) 『속중실록』 39년(1713) 3월 15일: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셨다. …(영의정) 이유가 또 함경도 감사 이선부의 장계로써 나아가 아뢰기를, 「백산(백두산)에다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일은 일찍이 허량 등에게 사문한 뒤에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케 했는데, 이제 이 장계를 살펴보건대, 허량의 말과 같으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신의 장계 중에, “목차가 전언하기를, ‘이제 다시 살펴볼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경계표지물을 세우는 일도 농사 틈을 기다려서 하고, 백성을 혹시라도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더욱 서둘러 끝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전일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했던 곳에 따라 천천히 일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李濩…濩又以威鏡監司李善溥狀啓進奏曰, 白山設標事, 曾於許樑等(卽其時蓋員, 事見上.) 查問後, 使道臣更覈矣, 今此狀啓, 與樑言一般, 不必更審, 且使臣狀啓中以爲, 穆差傳言, 今無更審之事, 須勿爲慮, 而立標亦俟農隙, 毋或傷民云, 尤不必趁速了當, 使從日前設標處, 徐徐完役似宜矣, …從之.).
- 67) 『속중실록』 39년(1713) 4월 10일: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셨다. …영의정 이유가… 또 백두산의 정계한 곳에 고산·심곡을 막론하고 모두 돌을 쌓고 목책을 세워 뒷날의 걱정이 없게 할 것을 청하였다. …모두 그대로 따랐다(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李濩…又請白頭山定界處, 勿論高山深谷, 皆令累石立柵, 俾無後慮, …竝從之.). 『승정원일기』 속중 39년(1713) 4월 10일: 이유가 계하기를, “근자에 돌아온 사신을 만나실 때, 정사 김창집이

‘백두산의 경계가 나뉘는 곳이 산이 높고 물이 깊어 혹은 돌을 쌓고 혹은 목책을 세웠다 할지라도, 경계 방어가 전혀 없어서는 불가하니, …(결)…도신에게 분부하실 것’에 대해 아뢰었습니다. 묘당에 품쳐하도록 명하여…(결)…이미 실상을 사문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조사할 일이 없으니, 비록 산이 높고 물이 깊을지라도, 피차의 지형이 분명한 곳은 혹은 돌을 쌓고 혹은 목책을 세워, 뒷날 말꼬리를 잡고 서로 싸우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이로써 본도(함경도) 감사에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하라.” 하셨다(李滯所啓, 頃者回還使臣引見時, 正使金昌集, 以白頭山分界處, 雖山高水深, 或累石, 或立柵, 不可全無防限(缺) 分付道臣事, 陳達, 有令廟堂稟處(缺) 既已查問實狀, 今無更覈之事, 雖山高水深, 彼此地形分明之處, 或累石, 或設柵, 俾無日後執言相爭之弊, 宜當, 以此申飭本道監司處, 何如, 上曰, 依爲之.).

68) 『속중실록』 39년(1713) 9월 19일: 비변사의 보고 내용에 근거하여,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흉년 때문에 잠시 정지하였다(因備局啓辭, 白頭山設柵之役, 以凶歲姑停).

69)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5일: 앞서의 인용 참조.

70) 『속중실록』 39년(1713) 3월 15일: …또 사신의 장계 중에, “목차가 전언하기를, ‘이제 다시 살펴볼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경계표지물을 세우는 일도 농사 틈을 기다려서 하고, 백성을 혹시라도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으니…(…且使臣狀啓中以爲, 穆差傳言, 今無更審之事, 須勿爲慮, 而立標亦俟農隙, 毋或傷民云…).

참고문헌

勘界使謄錄 上, 李重夏, 국립중앙도서관(古2102-84-1).
 勘界使謄錄 下, 李重夏, 국립중앙도서관(古2102-84-2).
 康熙皇輿全覽圖, 外文出版社 影印本(2007).
 大韓北輿要選, 金魯奎, 국립중앙도서관(M古1-2001-27).
 同文彙考, 국사편찬위원회(1978).
 鎭洲集, 朴琮,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121).
 白頭山定界碑地圖, 규장각(奎26675).
 北征錄, 金指南, 동북아역사재단 편, 백두산정계비 자료집(2006).
 北征日記, 朴權, 白山學報 第16號(1974).
 備邊司謄錄,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水道提綱, 齊召南, 臺灣商務印書館 文淵閣四庫全書 影印本(1988).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延吉邊務報告, 吳祿貞, 學務公所(1908).
 龍飛御天歌, 亞細亞文化史影印本(1972).
 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 규장각, 輿地圖(古4709-1).
 長白山江岡志略, 劉建封, 국립중앙도서관(朝68-61).
 制勝方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1999).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土門勘界, 李重夏, 규장각(奎21036).
 강석화, 2000, 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서울.
 景仁文化社 編輯, 1997, 最近北韓五萬分之一地形圖, 景仁文化社, 서울.
 김기혁, 2015, “『황여전람도』 「조선도」의 모본(母本) 지도 형태 연구-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관동·관서지도 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53-175.
 김인섭·강순재·윤의규·김봉희·김명선, 1997, 조선지도첩,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6, 백두산정계비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역), 2013, 譯註『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동북아역사자료총서 43, 동북아역사재단, 서울(篠田治策 編著, 1910,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
 백두산총서편찬위원회, 1992, 백두산총서, 과학기술출판사, 평양(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 홈페이지).
 백두산총서편찬위원회, 1994, 백두총서: 백두산 지도첩, 과학기술출판사, 평양(CNC 북한학술정보 백두산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서길수, 2009, 백두산 국경 연구, 여유당, 서울.
 申基碩, 1979, 間島領有權에 關한 研究, 探求堂, 서울.
 辛永吉(역), 2005, 간도는 조선땅이다: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知說堂, 서울(篠田治策, 1938, 白頭山定界碑, 樂浪書院).
 李康源, 2007a, “조선 초 기록 중 ‘豆滿’ 및 ‘土門’의 개념과 국경인식,” 문화역사지리, 19(2), 45-57.
 李康源, 2007b, “조선 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土門江·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30(3), 91-118.

- 李康源, 2010, “「大東輿地圖」白頭山·豆滿江 일대에 표시된 몇 가지 地名의 검토-國境認識, 位置·語源 및 誤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5), 474-496.
- 李康源, 2015, “임진정계시 ‘입지암류(入地暗流)’의 위치와 ‘토문강원(土門江源)’의 송화강 유입 여부,” 대한지리학회지, 50(6), 571-605.
- 李康源, 2016, “역대 실지조사기록 검토를 통한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분포 복원,” 대한지리학회지, 51(5), 577-612.
- 李康源, 2017, “임진정계 경계표지 토퇴의 분포와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수출(水出)’의 위치,” 대한지리학회지, 52(1), 73-103.
- 이상태,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서울.
- 이왕무·정옥재·양승률·서동일 역, 2008, 譯主『勘界使 臚錄(上)』,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 이왕무·정옥재·양승률·서동일 역, 2010, 譯主『勘界使 臚錄(下)』,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 이화자, 2011, 한중국경사연구, 혜안, 서울.
- 이화자, 2012, “중국·북한 국경 답사기: 백두산 토퇴군(土堆群)의 새로운 발견,” 문화역사지리, 24(3), 140-159.
- 이화자, 2013, “백두산 정계의 표식물: 흑석구(黑石溝)의 토석퇴에 대한 새로운 고찰,” 東方學志, 162, 241-281.
- 蔣尙勳, 2006, “清代 皇輿全覽圖 收錄〈朝鮮圖〉研究,” 東垣學術論文集, 8, 113-152.
- 國家測繪局 編制, 1997, 中國 1:1000,000 地圖, 中國地圖出版社, 北京.
-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處辦公室編印, 1974, 中朝·中蘇·中蒙有關條約·協定·議定書匯編, 長春.
- 山東省地圖出版社 發行, 2002, 延邊朝鮮族自治州行政區劃圖, 1:300,000, 濟南.
- 孫庫·柴壽德·傅玉民 編, 2002, 中朝邊界的歷史演變, (軍內讀物), 沈陽市第二市政工程公司印刷廠印刷, 沈陽.
- 楊昭全·孫玉梅, 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長春.
- 李花子, 2013, “康熙年間長白山定界與圖們江上流堆柵的走向,” 朝鮮·韓國史研究, 13, 175-212.
- 李花子, 2014a, “黑石溝土堆考,” 清史研究, 第1期, 37-52.
- 李花子, 2014b, “豆滿江正源形成考,” 韓國學論文集, 第22輯, 90-102.
- 李花子, 2015, “1885年, 1887年中朝勘界的重新認識,” 社會科學輯刊, 第1期(總第216期), 111-120.
- 李花子, 2017, “试析1907—1909年日本界定的“间岛”地理范围,” 近代史研究, 第3期, 148-159.
- 張彥·史彩奎·王健·馬小凡·呂宪國·王國平, 2012, “長白山圓池泥炭沼澤演變及環境信息記錄,” 濕地科學, 第10卷 第3期, 271-277.
- 張存武, 1987,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 中國測繪史編輯委員會 編, 2002, 中國測繪史第三卷(中華人民共和國 1949-1989), 測繪出版社, 北京.
- 陳慧, 2011, 穆克登碑問題研究-清代中朝圖們江界務考證, 全國百佳出版社·中央編譯出版社, 北京.
- 篠田治策, 1938, 白頭山定界碑, 樂浪書院, 東京.
-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933, 假製版 五萬分之一地形圖.
- 교신: 이강원,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haekong@chonbuk.ac.kr, 전화 063-270-2770)
- Correspondence: Kang-Won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city, Jeonbuk, 54896 Korea (e-mail: haekong@chonbuk.ac.kr, phone: +82-63-270-2770)
- 최초투고일 2017. 12. 5
수정일 2017. 12. 11
최종접수일 2017. 12. 21